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0
2010.05.12
gonggam.korea.kr



탄탄 경제성장 튼튼 대한민국

'反부패 전쟁' 나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경관 빼어난 궁궐·전각 개방합니다
소설가 조경란의 '엄마에게 쓰는 편지'

구제역을 극복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 아래 구제역 발생지역을 다녀오신 후, 최소 5일 안에는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34개국)** 중국(북경, 신장성, 광동성, 강서성, 진시성, 산시성), 일본,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몽골, 말레이사아(반도),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예맨, 오만,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이란, 인도, 타지키스탄, 태국,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자치구, 홍콩
- **유럽(3개국)** 그루지야, 터키, 러시아
- **중남미(7개국)**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아프리카(33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콩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토고

그리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과 구제역 예방에 노력하는 축산농가 방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양돈·낙농 농가 일동

차단 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DP 7.8% 증가 '경기 회복세'
서민경제 더 촘촘히 챙기겠다


연합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우리 경제의 성적이 좋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속보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퍼센트 증가해 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모습이다. 수출과 내수,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고르게 성장에 기여하면서 내용 면에서도 알찬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 사정도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 3월 중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만7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위기 이전인 2006~2007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28만9천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고용의 내용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지출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소비·설비투자 등 경기 호전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러한 경제성과를 반영해 국제신용평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원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유럽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지목해온 데 이어,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차입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경제의 차별성이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덕분이다. 아울러 강화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주효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 대응 조치를 결정하고 추진해온 것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 간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국제사회는 평가하고 있다.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했고 정부, 은행, 기업이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온 것도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의 재정불안,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경, 환율·유가의 급변동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영업, 지방경제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지면서 체감경기도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위기 극복으로 생긴 여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챙기는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G

Weekly
2010.05.12
No.60(통권 161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지표, 물가동향 등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조짐이다. 푸른 죽순처럼 쑥쑥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처럼.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어린이날인 5월 5일 서울공항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



일러스트 · 박영인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5.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46

기 획 특 집

위기 딛고 재도약하는 한국경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7.8퍼센트,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3월 중 취업자 26만7천명 증가, 2퍼센트대의 물가 안정세 지속…. 최근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기조가 지속되리라는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고루 퍼지도록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7개 신호'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9호(5월 5일자) 기획특집 '대한민국 농업 신기술 열전'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지식 농업인들 모두 힘내세요

"기획특집 가운데 '농부의 작은 기술이 녹색혁명 이끈다'란 기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례로 든 신지식 농업인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세계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농업을 천대하는 마음을 바꾸고 농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았으면 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기에 기획특집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농촌 사랑의 애틋함마저 느꼈습니다."_박동현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발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전파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쌀 원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농업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우리나라의 국격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sdjang0326

"단순한 먹을거리 생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농업기술의 장이 열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로 인공고막을 만들고, 감귤 껍질로 얼굴 팩이나 화상치료용 거즈를 만드는 놀라운 농업기술력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농촌을 너무 얕잡아봤다는 생각에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기술과 나노기술 등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물질과 소재를 개발하는 농업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겠습니다."_김민주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겨울은 한파가 계속돼 농장 난방비가 배로 들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에너지를 난방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대체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와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_김용석

59호 포커스 '경제성장률 7.8퍼센트…한국경제 파란불'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우리 경제가 재빨리 회복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1분기에 벌써 7.8퍼센트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추어 우리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똘똘 뭉치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_장삼동

59호 이슈 '이상기온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올해 봄의 이상기후로 농작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조량이 40년 만에 가장 적었다니 햇빛을 충분히 못 본 농작물들이 제대로 재배될 리 없고, 이 같은 상황은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_woojr2001


'쌀 원조'보다 '벼 농사법' 가르친다


'무한진화' 농업에 기술을 걸었다

알립니다

남극 대륙기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남극 대륙에 새롭게 지어질 제2기지의 이름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국토해양부는 동남극 로스해(Ross Sea)에 접한 테라노바 베이(Terra Nova Bay)에 2014년까지 3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기지를 건설할 계획. 남극 대륙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얻기 위해 남극 대륙기지 명칭 공모 행사를 마련했다.

5월 31일까지 남극 대륙기지 명칭 공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응모해도 된다. 응모 절차는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남극 대륙기지의 건설 의의 및 위상에 어울리는 명칭을 국·영문으로 기입하고 2백 자 안팎의 제안 설명을 첨부하면 된다.

당선작은 6월 22일 국토해양부 및 극지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대상을 받은 명칭은 향후 건설될 남극 대륙기지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Tel **02-2110-8457**
남극 대륙기지 명칭 공모 홈페이지
2ndstationname.kopri.re.kr

다문화가족 '다누리'로 다 누려라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털사이트 '다누리(DANURI)'를 개설했다.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누리'는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홈페이지의 우리말 누리집의 '누리'의 조합어로 '다문화가족 모두가 누리다'라는 뜻을 지녔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자녀교육정보 등 교육 관련 서비스와 한국 사회 관련 다국어 뉴스, 다국어 라디오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포털사이트는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며, 올해 말 필리핀어 등 2개 언어를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누리'에 전국 1백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연결했다.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 위탁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Tel **02-3140-2260**
다누리 홈페이지 liveinkorea.mogef.go.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5월 1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다시 일어서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OOO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 만들어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4. 일하는 곳. 직장.
5. 밤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류를 모여들게 하려고 배에 켜는 등불. 불빛을 따라 모여드는 물고기의 성질을 이용하여 고등어, 오징어, 정어리, 전갱이 같은 고기가 모여들게 하죠.
7.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 가사. 가계.

세 로

1. 안건을 결재해 허가함.
2. 산 같은 곳에 있죠. 샘물이 나오는 곳.
3. 활이나 총, 로켓 등을 쏘는 일. "오는 6월 9일 우주로 다시 쏘아 올려질 한국의 첫 우주OO체 나로호(KSLV-Ⅰ) OO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 으뜸가는 등급.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의 김태균 선수가 연일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 승리의 OO공신이 되고 있다."
6.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가정의 달 5월에는 5일 어린이날, 8일 OOO날, 15일 세계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죠.

〈Weekly 공감〉 58호 (4월 28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라운지 **4** 길상사 **5** 화산 **6** 의기투합 **8** 응원
세로 1 라디오 **2** 지름길 **3** 노사화합 **6** 의원 **7** 투명

〈Weekly 공감〉 58호 '공감퍼즐' 당첨자
권혜선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김옥이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오성진 · 대전 서구 둔산동
이미형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장주영 · 광주 동구 소태동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선생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2008년 가을, 두 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지금 살고 있는 26.4제곱미터짜리 극빈층 아파트에서는 취객들의 난동이 끊이지 않아 새로 분양 중인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려는데 전세보증금 3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자폐증을 가진 큰아이 앞으로 매달 나오는 1백여 만원의 정부보조금은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나가고, 15년 전 이혼한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도 주민등록을 말소한 채 소식을 끊어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 마땅히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아이들을 부양하느라 신용 상태가 엉망이 된 그에게 대출을 허락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극빈자를 위한 대출제도들을 알아봤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중 민원인이 큰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지금은 빌린 돈의 원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분할 납부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자 가운데 분할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에 한해 5백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자금을 2퍼센트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민원인을 대신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니 가망이 있었다. 내친 김에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그에게 직접 답변할 것을 간청했다. 몇 시간 후 그는 "3백만원 대출이 가능하대요!"라고 전하며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며칠 뒤 그가 대출금으로 무사히 이사했다고 알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리 · 김지영 기자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송승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 '여성 첫 14좌 정복…오은선, 히말라야를 품다' 기사를 읽고 간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여성 산악인 최초로 오른 오은선 씨의 강인한 열정과 노력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미쳐 끝까지 도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낸다는 것을 보여준 오은선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2. 이번 기획특집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훌륭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다이어트용 쌀 등 맞춤형 기능성 쌀은 물론, 컬러 고구마 등 항산화 및 노화방지 기능이 우수한 농산물, 누에고치를 이용한 인공고막 등 의약용 제품까지 농업기술의 무한변신이 실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1차(식량), 2차(가공), 3차(관광)산업에다 다른 산업까지 융복합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생성장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3. 요즘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실질적인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수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 '네덜란드 발케넨더 총리 방한' 관련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예부터 물 관련 대책이 풍부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새만금사업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자원 관리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케넨더 총리가 강조했듯이 특히 '수질관리' 부문에 있어서 많은 비법을 전수받아 대한민국의 강들을 깨끗하게 보존했으면 합니다.
2. 매일 쌀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수 품종·로열티 경감기술 개발, 생물 신소재 연구, 축산·바이오공학 등 다양한 농업 연구 분야에서 힘써온 농업인들이 있기에 이렇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으로 거듭날 미래 농업기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3.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5월입니다. 가족들과 갈 만한 나들이 장소나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를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2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위기 딛고 재도약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참여해요! 재난훈련
자랑해요! 안전한국
2010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은 21개 중앙부처, 246개 지자체, 131개 공공 기관 ·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재난대응훈련입니다.
2010. 5. 12(수) ~ 14(금)
| 1일차(5. 12) 대규모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
| 2일차(5. 13) 지진 · 해일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
| 3일차(5. 14) 화재 · 폭발 등 인적재난 대응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School Bus
1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소방방재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청렴도는 3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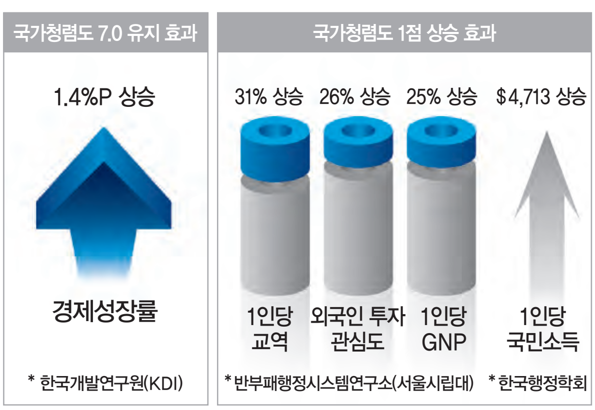
淸白吏가 국가경쟁력 시발점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에 앞장서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진국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청렴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 등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이 운동은 '반부패 청렴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격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뱅크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부패 척결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는다. 이처럼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청렴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청렴한 사회의 실현은 필수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CPI)는 5.5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80개국 가운데 39위이고,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에 그친다. 2003년 4.3점에 지나지 않던 우리나라의 CPI가 이만큼 오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CPI가 7점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경제규모에 맞는 청렴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 못해 부패가 빈발하고 선진 일류국가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패가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나라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백 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장애물인 부패 해결을 통해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

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국민 고충이 공직사회의 청렴성 결여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의 권익과 국격(國格)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선진국의 실태를 조사해 '청렴선진국은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반부패와 청렴을 스스로 서약하고 실천하며, 작은 비리로도 반드시 처벌받아 부패 공무원이 발붙일 수 없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한 나라 만들기 범국민운동은 바로 청렴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 윤리의식 고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속으로 청렴의식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미 시작됐다. 지난 2월 전국 36개 초중고등학교를 '청렴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청렴 수칙을 실천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OECD 주요 국가별 국가청렴도지수(CPI) 현황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2009	1위(9.4점)	2(9.3)	3(9.2)	17(7.7)	19(7.5)	24(6.9)	32(6.1)	39(5.5)	49(5.0)	63(4.3)	71(3.8)
2008	1위(9.3점)	1(9.3)	1(9.3)	16(7.7)	18(7.3)	23(6.9)	28(6.5)	40(5.6)	58(4.6)	55(4.8)	57(4.7)



조영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서울역사 앞 광장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렴韓세상 만들기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청렴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시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공공사업의 청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반부패와 청렴의 생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 등 반부패·청렴 생활화 유도

이와 함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청렴한 나라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쳐진다. 캠페인의 브랜드 로고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상징하는 '청렴韓세상'.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권익위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7일 서울역사 앞 광장에서 '청렴韓세상 만들기 캠페인' 발대식과 로고 선포식을 갖고 서울역과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역,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청렴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청렴 에세이 공모전과 초등학교 청렴 글짓기 대회, 청렴 촌극경연대회, 반부패·청렴 웅변대회, 어머니 청렴 지킴이, 대학생 청렴 홍보단 등이 그것.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 양동훈 서기관은 "부패한 나라는 국민을 힘들게 만들지만 청렴한 나라는 국민의 몸과 마음을 살찌운다"며 "이런 청렴 캠페인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청렴韓세상 만들기 국민 참여 프로그램

행사명	시기
초등학생 청렴 글짓기대회	6월(예선)~9월(본선)
청렴 에세이 공모전	5월
중학교 청렴 백일장	6월(예선)~9월(본선)
청렴 촌극경연대회	6월(예선)~9월(본선)
고등학생 청렴 논술경시대회	5월
반부패·청렴 웅변대회	8월(예선)~10월(본선)
대학생 청렴 홍보단	6월~11월
어머니 청렴 지킴이	7월~10월

'부패예방 전도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청렴도 1점 오르면 GNP 25% 상승"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줄곧 '반부패와 청렴이 국가경쟁력'임을 역설해온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리를 잃는 한이 있어도 청렴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하 권익위)이 최근 행정고시에서 선발된 3백여 명의 사무관을 교육하며 받아 적으라고 한 말이다. 이 위원장은 이 말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씩 가슴에 새기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만큼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기관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거나 '이유 있는' 접대를 받을 때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제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지난 5월 4일, 이 위원장을 만나러 권익위를 찾았을 때 직원들은 "공무를 볼 때도 원래 타고 다니던 봉고차로 이동하고,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잔뜩 모아오는 분"이라고 그를 평했다. 하지만 '피곤한' 상사 덕분에 권익위는 물론 다른 공무원조직의 기강도 바로서고 있다며 흡족해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더 나아가 동료와 가족,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취임 후 꾸준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청렴 특강'을 펼쳐오셨는데요.

청렴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기업인 등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50여 회의 청렴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고위직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6천5백여 명의 간부급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패를 불가피하게 용인해왔으나 지금은 그 문제가 선진국 도약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으로 국가청렴도지수(CPI)가 10점 만점에 5.5점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7.0점대까지 올라가야 해요.

특히 올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국제위상에 어울리는 국격을 실현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렴문화 조성과 부

패 예방에 정부와 국민, 기업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반부패와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원인 중 하나는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부패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의 CPI는 대부분 7.0점 이상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4만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CPI가 7.0점에 이르면 1.4퍼센트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CPI가 1점 오르면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5퍼센트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반부패와 청렴의 의무화를, 국민은 청렴의 생활화를 꾸준히 실천해야 하며, 기업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회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청렴한 나라로 탈바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처럼 공직사회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패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공직자는 반부패와 청렴의 의무화를, 국민은 청렴의 생활화를 꾸준히 실천해야 하며, 기업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회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이 구석구석에 퍼져 모든 사회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청렴의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의 청렴의식을 측정하는 조사에서 40~50퍼센트의 학생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찻길을 그냥 건너겠다'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지 않겠다' 고 답해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찰 스폰서 문제나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같은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 지나친 온정주의, 접대문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회가 바로서려면 공무원들 스스로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부패 관행들이 공직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려면 공무원 시험에 청렴 과목을 신설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면 공직생활을 오래할 수 없고 승진할 수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평가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부분 기여한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백7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했으나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평가받는 게 마땅해요. 다만 올해는 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7백10여 개 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려 합니다.

고위공직자와 더불어 인허가나 지도단속 등 주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개인별로 평가하는 방안도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는 기업들이 투자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3차 유엔 부패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설명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을 방문해 반부패, 청렴과 관련한 국제 공조활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유엔, 월드뱅크, 유엔개발계획(UNDP) 등 반부패 국제기구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요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그간의 추진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를 지금보다 20퍼센트만 줄여도 큰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가 현재 39위에서 세계 30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 전임자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사진)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노조가 전임자 수를 줄이게 됐다.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 확정

유급 노조 전임자 크게 줄어든다

노조 간부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선이 확정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특히 대기업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확정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조 간부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 것.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은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정의 노동법 개정안 합의(2009년 12월 4일)를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개정된 노동법이 지난 1월 1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노조는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이 한도 안에서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1구간으로 나누어 역진적(逆進的)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상한선을 결정했다. 대기업 노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중소기업 노조엔 비교적 관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다.

확정된 상한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풀타임을 노조 전임자(1인당 연간 2천 시간 기준)로 환산해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사업장은 1명 △1백~1백99인 사업장은 1.5명 △2백~2백99인 사업장은 2명이다. 조합원 3백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조의 88퍼센트에 이른다.

대기업 노조보다 중기 노조에 관대

또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3백~4백99인 사업장은 2.5명 △5백~9백99인 사업장은 3명 △1천~2천9백99인 사업장은 5명 △3천~4천9백99인 사업장은 7명 △5천~9천9백99인 사업장은 11명 △1만~1만4천9백99인 사업장은 14명이다. 1만5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수는 △

2012년 6월까지 최대 24명 △그 이후에는 최대 18명이다. 이날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한 사람의 풀타임 전임자 대신 최대 3인(3백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활동시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5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 합의의 산물"이라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되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5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노사가 이면합의로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사용자 측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엄격한 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아DB

KT 노조가 지난 3월 상급단체에 냈던 비용을 사회공헌에 지원하는 '창조적 신(新)노사문화'를 선언(사진)하는 등 노동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노동문화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현행 노동법 제90조에선 노사 간 이면합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수노조 설립 시에도 전임자 총량 변함없어

"국제적으로 노조는 자주운영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임 장관은 "노동계는 스스로 조합비를 해결하면서 당당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임 장관은 또 "복수노조가 설립돼도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총량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가 자신의 사업장 일을 하면서 상급단체 활동을 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앞서 지난 4월 20일 내놓은 '노조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노조원 4만5천명에 전임자 2백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임자를 뒀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단협이 만료되는 내년 4월부터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 기아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1백44명에서 19명으로,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정에 앞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7백여 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G 글 · 박경아 기자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시간과 전임자 수

*2010년 7월부터 적용

조합원 규모(명)	연간 유급활동 시간 한도	전임자 수(명)	활동 시간을 나눠 쓸 수 있는 인원
50 미만	1,000	0.5	풀타임 전임자의 3배수
50~99	2,000	1	
100~199	3,000	1.5	
200~299	4,000	2	
300~499	5,000	2.5	풀타임 전임자의 2배수
500~999	6,000	3	
1,000~2,999	10,000	5	
3,000~4,999	14,000	7	
5,000~9,999	22,000	11	
10,000~14,999	28,000	14	
15,000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2만8천 시간+매 3천명당 2천 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최대 3만6천 시간 이내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지

● 2009년

- 12월 4일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합의안 마련
- 12월 8일 한나라당, 노사정 합의안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0년

- 1월 1일 노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규정 심의 의결
- 3월 29일 현장 노사 의견 수렴
- 4월 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의제 확정
- 4월 23일 노사 요구안 제출
- 4월 23~29일 노사간 합의 도출 노력
- 4월 30일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 5월 1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 심의 의결(표결)
- 7월 1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선생님들 잡무 줄여 수업 전념토록 지원"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튼실하게 다지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해 선생님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학문의 즐거움을 가르침에서 전해주며, 지극히 값진 정신적 보물을 젊은이들과 더불어 나누도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헨리 반다이크의 '무명(無名)교사 예찬' 중 한 구절이 떠오르는 5월입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는 학생들 지도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의 수고를 되새기게 됩니다.

교육의 힘은 선생님들의 열의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소신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 현장에 변화의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생님들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아이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업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하는 일 이외에는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공문 처리 부담을 줄여나가고, 수업이나 행정 업무에 있어 보조 역할을 하는 인턴교사도 올해 하반기에 3천명을 증원해 매년 약 1만명을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뒷받침되면 선생님들이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형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더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정도 제공하고, 이후 학교 현장에 돌아와서 동료 교사들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올해 1백20명을 시범 운영하고, 2012년까지 1천명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자율연수휴직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수업에 전념하는 분들이 교감, 교장이 아니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교원의 승진체계가 관리직으로 일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업에만 전념해온 선생님들이 오히려 승진에서 탈락해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수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헌신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지난 30여 년간 논의만 계속해오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잘 가르치는 일' 만으로도 교직을 명예롭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는 2011년 2천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학교당 1명씩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 **"선생님들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업 준비에 더욱 집중하게끔 통계 DB 구축, 인턴교사 증원 등을 통해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얼마 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제' 확대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공모 방식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는 능력과 자격을 충분히 갖춘 교장을 선발해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 중심의 교직문화를 만들고 학부모 등 수요자가 선발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의 거리를 좁히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오해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입 비율은 전체 학교의 50퍼센트 정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교장 자격 소지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교



조영철 기자

자율형 공립고인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는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선발했다. 교장공모제는 올 하반기 전국 4백35개교에서 확대 시행된다.

감의 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는 등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리, 감독 기능에 치우쳐 있던 지역교육청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해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적 성격이 강했던 기존 장학제도를 학교와 선생님이 필요한 분야를 요청하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등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튼실하게 다지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 기관이 할 일이지만 변화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인재로 길러내는 것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학생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도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을 찾아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더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온 누리에 생동감이 넘치는 5월, 우리 교육계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G

교장공모제 435개교 추가 실시 인턴교사 내년 1만명 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일부 지역 학교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순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에서 탈피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것. 선의의 경쟁 속에서 능력 있는 교장을 뽑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게 취지다.

현재 교장공모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5백26개교로 전국 국공립학교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동안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곳은 주로 농산어촌 등 비선호지역 학교라 공모 지원율이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시도교육청 7백67개교 가운데 56.7퍼센트인 4백3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농산어촌(1백52곳) 외에도 대도시(서울, 부산 등 2백곳), 중소도시(83곳) 등 선호지역의 학교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전체 국공립학교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초빙형 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과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또 외부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는데, 이번 뽑는 4백35곳은 모두 초빙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모를 앞두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양성해 평균 10 대 1, 인기 학교는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올 9월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4년간이다.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학부모회 임원, 지역 주민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로 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 인턴교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3천명 추가로 선발해 내년부터 1만명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신분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로,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하며 현재 7천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인턴교사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등 1백56억원을 포함해 총 1천3백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턴교사는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선발 대상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턴교사의 월 보수도 현행 1백3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해 예비교원의 참여율이 올해 65퍼센트에서 내년에는 80퍼센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 · 최은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일일 승무원 체험을 하며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대통령 전용기 꿈을 타고 날아라

이명박 대통령, 새 전용기로 어린이들 초청

"어린이 여러분,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꿈을 품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1백80명의 어린이를 서울공항으로 초청했다. 4월에 새로 마련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어린이들과 함께 탑승해 글로벌 시대의 꿈나무들에게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 것.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군인, 경찰관 등 국가에 봉사하는 가정의 자녀 등이 초청됐으며 청와대 어린이 기자들과 어린이 법제관들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과 함께 국방부 의장대 열병 및 군악대 연주 등을 감상한 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때 한 어린이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부터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전용기 앞 광장에서 어린이들과 '산중호걸'이란 동요를 부르며 짝짓기 게임을 하고 전용기의 일일 승무원으로 어린이들을 환대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연합







1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어린이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 어린이들은 전용기 탑승 전 이명박 대통령과 짝짓기 게임 등을 하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3 지난 4월 새로 마련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향을 느끼고 맛을 즐기니 이런 풍류 따로 없네

청와대사랑채 초의차 시연·무료 시음

은은한 차 향기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곳, 전통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사랑채다. 지난 1월 문을 연 청와대사랑채는 많은 내방객에게 우리 녹차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되고 있다.



청와대사랑채에서 전통차를 즐기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유복열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상임이사가 어린이들에게 다도 시연을 하고 있다.

여유로운 봄날 하루쯤 우리 전통차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사랑채를 들러도 좋을 것이다. 2백 년 전 우리의 전통차 문화를 일으키고 보급했던 초의선사, 그의 다도문화를 전승한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이사장 석용운 스님)이 지난 2월 3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수요일 또는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5월은 8, 12, 22, 26일) 차 시연과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시음하는 내방객만 하루 평균 2천5백명, 차 우려내는 데 사용되는 물만 하루 1백50리터에 이른다.

초의차와 함께 다도의 깊은 멋까지 체험

이곳에서 제공되는 '초의차'는 석용운 스님이 초의선사의 제다법(製茶法)으로 만들어낸 차다. 초의학술문화원 산하 사회적 기업인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이 생산한 초의떡차, 초의진



"초의茶 향기 세상에 널리 전하고파"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석용운 스님

"초의 스님의 차는 미움과 질투를 버리게 하는 감로수."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인 석용운 스님은 "초의차 한 잔을 통해 불우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초의선사의 5대 법손인 석용운 스님은 2008년 사회적 기업인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을 설립,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며 초의차 보급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 1998년부터 전남 무안군과 함께 초의선사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를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왕산리에는 초의기념전시관을 비롯해 차 박물관, 다성사, 일지암, 용호백로정 등 15동의 거대한 차문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등 한국 전통차에 관한 명저를 남긴 초의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석용운 스님은 그동안 국내외 명차 제조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제다법을 익혔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차 제조법만 1백50여 종. 모든 제다법의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석용운 스님은 "초의 스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를 개발해 불교를 알리고, 나아가 지역민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초의차의 맑고 향기로움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글·서주희(국악방송 문화캐스터)



전통 한과는 물론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 한과, 전통 다과상 차림, 한과의 원재료도 선보였다.

양차, 초의신다 등 3종류의 차를 음미할 수 있다.

초의떡차는 삼국시대의 차를 고증해 재현한 것으로, 차의 생잎을 따서 쪄낸 다음 절구에 찧어 덩어리가 된 것을 틀에 박아 떡처럼 건조시켜 끓여 마시는 차다. 초의진양차는 발효차다. 우리 차는 잎이 작아 발효가 안 되는데, 초의학술문화원이 특허기술로 발효시켰다. 초의신다는 볶음차로, 세계녹차협회(일본)가 주관하는 2009년 녹차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은 명차.

청와대사랑채에서 초의차 시연과 시음 행사를 진행하는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의 유복열(47) 상임이사는 "초의떡차는 구수한 맛이 독특하고, 초의진양차는 향이 뛰어나며, 초의신다는 맛이 일품"이라고 설명했다.

초의차 시연장을 찾는 내방객 중 외국인이 80퍼센트라고 전한 유 이사는 "외국인들은 한국 차 문화와 역사, 효능, 마시는 방법, 한국식 다구(茶具), 한복 등에 관심을 갖는데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 다도와 일본 다도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일본 다도가 권위적이고 격식을 따지는 반면 우리 전통 다도는 풍류를 중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이사는 세종대 대학원에서 다례복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우리 전통 차 문화에 흠뻑 빠져 초의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청와대사랑채를 찾아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시연장의 평상에서 '차 박사'인 유 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차를 우려내 음미하며 다도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청와대사랑채 Tel 02-723-0300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청와대사랑채 〈2010 한菓의 오감전〉 성황리 마쳐



기름에 튀겨내 고물을 묻힌 유과, 물엿이나 꿀에 졸인 정과, 과일을 삶아 걸러 굳힌 과편, 조청에 버무린 강정….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한과 전시가 열렸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와대사랑채에서 열린 〈2010 한菓의 오감전〉에서는 한과 명인들의 작품과 현대인의 입맛을 가미한 퓨전 한과, 전통 다과상 차림, 한과의 원재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한과 명인의 시연과 관람객의 다식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한과 명인의 시연에서는 국가 지정 한과 명인 제26호이며 이번 전시를 주최한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의 김규흔 관장이 '손가락 유과'를 만들어 보였다.

김 관장은 "한과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한과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특히 쌀 소비 촉진 등 가공식품의 교육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과 전문 교육생들이 작품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기 획 특 집

경제가 살아난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7.8퍼센트,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3월 중 취업자 26만7천명 증가, 2퍼센트대의 물가 안정세 지속…. 최근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기조가 지속되리라는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 고루 퍼지도록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7개 신호'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일러스트 · 박용인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퍼센트 성장했다. 이는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에 비해서도 3.2퍼센트 높아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경제 회복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퍼센트 성장했다. 이는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에 비해서도 3.2퍼센트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되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지난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연간으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가운데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우리나라, 호주, 폴란드뿐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은 2.5퍼센트, 일본은 2.6퍼센트, EU는 0.6퍼센트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1일 '2010년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 4.5퍼센트, 내년 5퍼센트로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은 올해 3.1퍼센트와 1.3퍼센트, 내년에 2.6퍼센트와 1.9퍼센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은 내용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재화 수출과 정부 소비가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지난해 4분기) 대비 3.6퍼센트,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6퍼센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이 호조를 보여 1.5퍼센트 늘어났다.

IMF의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10년 4월)

주요 국가	2009년(실적치)	2010년	2011년
브라질	-0.2	5.5	4.1
캐나다	-2.6	3.1	3.2
중국	8.7	10.0	9.9
프랑스	-2.2	1.5	1.8
독일	-5.0	1.2	1.7
인도	5.7	8.8	8.4
이탈리아	-5.0	0.8	1.2
일본	-5.2	1.9	2.0
한국	0.2	4.5	5.0
멕시코	-6.5	4.2	4.5
러시아	-7.9	4.0	3.3
스페인	-3.6	-0.4	0.9
영국	-4.9	1.3	2.5
미국	-2.4	3.1	2.6
EU	-4.1	1.0	1.8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청신호

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1퍼센트(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퍼센트) 증가했다.

내수는 민간 및 정부 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2.7퍼센트(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퍼센트) 증가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지출이 늘어 전기 대비 0.6퍼센트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으로 전기 대비 5.7퍼센트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건설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기 대비 1.5퍼센트 증가했으며, 건설 투자도 건물 건설은 감소했으나 토목 건설이 늘어 전기 대비 0.9퍼센트 늘었다. 재화 수출은 반도체, LCD, 자동차 등이 크게 늘어 전기 대비 3.4퍼센트 증가했으며, 재화 수입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5.4퍼센트 증가했다.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제 급락을 완화했고,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도왔다.

지난해 정부는 40회에 걸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조치를 추진했다. 11조4천억원의 수정예산과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2퍼센트까지 인하하고, 원화와 외화의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신



동아DB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우리 정부의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외환시장은 조기에 회복됐다.

용보증 확대, 패스트트랙(Fast Track·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줬다.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형식을 통한 단기적인 자금 융통 계약)를 체결했고, 3조3천억원의 은행자본 확충펀드와 2조1천억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건설, 조선, 해운 등 부실 우려 업종과 신용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시장안정을 꾀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IMF도 지난해 12월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종합적이며 시의적절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단행한 결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또한 올해 2월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시의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고,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올해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에 힘입어 금융·외환시장은 조기에 안정을 되찾았다. 주가는 빠르게 회복돼 2009년 9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시장금리도 위기 이전보다 낮아졌다. 각종 기업 지원대책에 힘입어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경영 여건도 뚜렷이 개선됐다. 부실채권 비율이 감소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상승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이 늘어났다.

발빠른 정부 시장안정 조치 효과 나타나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싸였던 2009년 1분기에는 GDP 성장기여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정부 1.9퍼센트, 민간 마이너스 6.2퍼센트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정부 0.8퍼센트, 민간 7퍼센트로 민간 부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5퍼센트 성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4월 12일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5.2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장보현 사무관은 "1천1백원대 환율이 지속될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지역의 재정 문제, 중국의 유동성 관리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농식품·환경기술 등 수출 급증

‘신상’ 효자로 떠오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 경제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다. 수출은 한국경제의 대외 경쟁력, 나아가 글로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예상케 하는 조짐도 지난 연말부터 수출에서 피어올랐다.



동아DB

2010년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등 IT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對) 중국 수출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백 퍼센트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 경상수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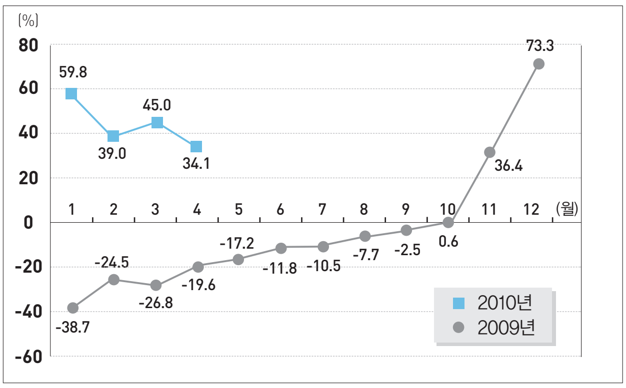
충북 음성군 선정리에 자리한 신성이엔지 공장. 반도체와 LCD 공장의 필수장비인 클린룸에 쓰이는 FFU(Fan Filter Unit)를 만드는 이 업체는 요즘 초록색 옷을 입은 계약직 사원들이 공장 내부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공장에선 분홍색 옷을 입은 정규직 사원들밖에 볼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수출 물량이 폭증하면서 회사가 계약직 직원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진풍경이다.

이 회사의 경우 1월부터 일본, 대만 전자업체들의 주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웬만하면 한국 제품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도시바사(社) 관계자들도 4월 공장을 찾아 발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왔다. 현재 매일 4백 개의 FFU를 제작하고 있는데, 3월까지 수주한 물량만도 지난해 연간 수주량을 넘어섰다.

요즘 이 같은 낭보가 여기저기서 날아들고 있다. 수출 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5월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수가 잇따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수지를 번번이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백39억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11월 대비 17.9퍼센트 상승률을 기록, 첫 상승국면에 진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호조를 보이고 있다.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1.5퍼센트가 증가한 3백98억8천만 달러의

IT 산업 수출 증감률 추이



IT 및 전체 산업 수출 실적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0년		2009년	
		4월	1~4월	4월	1~4월
수출	전체 산업	398.8 (31.5)	1,412.3 (34.8)	303.3 (−19.9)	1,047.5 (−23.7)
	IT산업	126.7 (34.1)	471.3 (43.6)	94.5 (−19.6)	328.3 (−27.4)
수입	전체 산업	354.7 (42.6)	1,335.5 (38.7)	248.7 (−35.0)	962.9 (−33.3)
	IT산업	59.6 (17.0)	229.0 (28.6)	51.0 (−25.0)	178.1 (−31.0)
무역수지	전체 산업	44.1	76.8	54.5	84.6
	IT산업	67.1	242.2	43.6	150.2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동아DB

수출 '국가대표'인 자동차도 올 들어 가파른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실적을 나타냈다.

이런 실적은 반도체, 조선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해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결과다.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도 한 원인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지식경제부가 5월 7일 발표한 'IT산업 수출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4월 IT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1퍼센트 증가한 1백26억7천만 달러로 4월 전체 수출액수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IT 무역수지는 67억1천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 코리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 시장 다변화 성공

특히 반도체는 대(對)중국 수출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97.7퍼센트 (41억8천만 달러) 상승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채널도 40.4퍼센트가 늘어난 28억4천만 달러로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허경일 주무관은 "향후 IT 수출은 윈도7 효과, 스마트폰 등 IT 제품 출시 확대 및 월드컵 특수 등으로 당분간 호조세를 더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출 국가대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다. 올 들어 수출이 증가하더니 4월에는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4퍼센트가 증가한 24만8천6백75대.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 대수 역시 83만6천2백79대로 지난해 1분기 실적(60만6천99대)을 훌쩍 뛰어넘었다.

농수산물 수출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에 따른 결과다. 특히 경북 안동시의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안동시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만5천8백18톤. 금액으로는 1천2백92만 달러다. 2008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는 7백17퍼센트, 금액 기준으로는 2백17퍼센트나 증가했다.

환경기술 수출 실적이 급증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 경제개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 베트남 시장에 국내 환경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상하수도와 폐기물 분야 기업이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환경측정 분석,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환경컨설팅 분야 등에서 기술 수출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1조7천75억원이던 수출액이 지난해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3조5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아줄 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녹색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린 보증 브랜드'를 선정한 것. '그린 보증 브랜드'는 고품질의 제품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가 있는 기업의 대외 공신력을 높여주는 국가 인증으로 5월 초 30개사가 선정됐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5월 3일 발표한 '1분기 수출입 동향 및 2분기 전망보고서'에서 2분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22퍼센트 증가한 1천1백3억 달러로 예상했다. 무역수지도 93억 달러 흑자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70.7퍼센트), 자동차(29.4퍼센트), 자동차부품 (90.3퍼센트) 등이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2788억 $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감했던 외환보유액이 올해 4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4월 말 외환보유액이 2천7백88억7천만 달러로 3월 말보다 65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천7백36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 증가폭도 최대다.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 2천4백1억3천만 달러, 예치금 3백40억2천만 달러, 특별인출권 37억 달러,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9억5천만 달러, 금 8천만 달러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유로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미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드는 등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운용수익이 증가해 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Digital, Decent, Dynamic

제조업 새로운 3D로 무장하라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제조업의 활황이 두드러진다. 2차산업으로 묵묵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의 부활이다.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산업'의 귀환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어드(geared) 모터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중소기업 SPG. SPG와 같은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우리나라 경제회복도 빨라지고 있다.

동아DB

3 제조업 활성화

혹자는 "또 삼성전자야?" 할지 모른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성적표는 매출 34조6천4백억원, 영업이익 4조4천1백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잘되니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자리한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에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2백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 회사 대표는 "현재 공장 직원 1백50명 정도가 납품에 매달리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납품 규모가 지난해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 매출 8조4천1백82억원, 영업이익 7천2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39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퍼센트 늘었다.

이처럼 기록적 매출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견인차가 되어 우리나라는 1분기에 7년 만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부문의 호조로 전기 대비 3.6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0퍼센트가 늘어나 2000년 3분기(20.6퍼센트)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0퍼센트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 "기록적 매출실적을 거둔 제조업이 견인차가 되어 우리나라는 1분기에 7년 만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늘어나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4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3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1퍼센트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이 연이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출이 활발한 데다 건설과 기계장비 분야의 내수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5퍼센트로 금융위기 이전(80.8퍼센트)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제조업의 귀환'을 입증하는 또 다른 보고도 있다. HSBC는 4월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57.1로 집계됐다고 5월 3일 밝혔다. 이는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월(58.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3월(55.6)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14개월 연속 성장세다.

2차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그동안 금융보다 '하위산업'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권을 도미노처럼 붕괴시키는 와중에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시아 국가들은 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하는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위기탈출 국가'로 평가받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조업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선두에 섰다.

한편 위기를 통한 '제조업의 재발견'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가 5월 6일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력 확충, 자금 지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3D(Dirty, Difficult, Dangerous)'로 인식돼온 뿌리산업을 '새로운 3D(Digital, Decent, Dynamic)'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8조원 수준인 뿌리산업의 생산규모를 2013년까지 45조원까지 늘리고, 기술혁신 기업 1천5백 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 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의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퍼센트(2만2천5백 개), 무게 기준 86퍼센트(1.36톤)에 이른다.

지식경제부 이승우 철강화학과장은 "전통 제조업과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0년까지 뿌리산업의 연간 생산규모가 72조원으로 커지고, 불량률은 2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져 우리나라 제조업의 든든한 기반이 돼줄 것"으로 기대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2010년 1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1.2	0.3	-0.1	-4.5	0.2	2.4	3.2	0.2	1.8 (7.8)
농림어업	5.2	1.9	-0.6	0.5	-0.1	-0.4	2.9	0.4	-4.4 (-1.3)
제조업	1.4	1.0	-0.6	-11.2	-2.5	8.0	9.4	-1.7	3.6 (2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0.9	1.7	2.1	2.4	-1.3	3.8	-2.6	5.0 (5.2)
건설업	-2.4	-2.2	1.5	-3.8	4.4	1.2	-1.0	-0.6	1.6 (1.2)
서비스업	1.0	0.2	0.3	-1.2	0.3	1.0	0.9	0.9	1.5 (4.3)
국내총소득 (GDI)	-1.0	-0.3	-2.3	-2.7	0.1	4.7	1.4	2.8	1.0 (9.1)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포함

솔~ 솔~ 고용시장 봄바람

올 들어 취업자 수, 취업률, 실업급여액 등 각종 '일자리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은 물론, 올 초부터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취업시장에 온기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4 고용 회복

"정치학을 전공한 제가 은행에 입사한다는 건 불가능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상경계열 지원자보다 당연히 불리할 것 같았죠. 하지만 재학 시절 경제학 수업을 꾸준히 듣고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준비를 차근차근 했어요. 또한 모 은행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덕에 입사 때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지난 2월 SC제일은행에 취업한 새내기 행원 박지훈(27) 씨의 얘기다. 숭실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박 씨가 졸업과 동시에 70 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금융권 취업에 성공한 데는 정부가 적극 장려한 '청년인턴제'를 활용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월 78명을 채용한 데 이어 최근 1백5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인사본부 총괄 피터 햇 부행장은 "경기회복과 은행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지점 수를 확대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SC제일은행의 새내기 행원 박지훈 씨는 '청년인턴제' 등에 힘입어 금융권 취업에 성공했다.

올 들어 각종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먼저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7천명 증가했다. 이는 2007년 12월(취업자 수 26만8천명) 이후 최대 증가치다.

전년 대비 취업자 26만7천명 증가

또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월에 5천명, 2월에 12만5천명, 3월에 26만7천명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 제조업 취업자 수도 증가세다. 3월에는 11만명 늘었으며 2004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 수도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전년 동기 대비 9천명에서 많게는 14만2천명 더 느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더불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 등으로 알아보는 '실업 지표'도 최근 2,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각각 8만8천명(18.5퍼센트 감소), 9만5천명(12.8퍼센트 감소)이었다. 4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4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2천명(12.5퍼센트) 줄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 액수도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4월에는 40만5천명에게 실업급여 3천3백51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지급자 수는 5만명, 액수로는 17.4퍼센트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은 지난 1, 2월 계절적 요인으로 4.9~5.0퍼센트에 육박했으나 3월 들어 4.1퍼센트대로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0퍼센트로 정점을 찍은 후 3월에는 9퍼센트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전체 실업자 수는 1백만5천명으로 2월에 비해 16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권재관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외국 주요 국가에 비해 고용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4.1퍼센트)은 미국(10.2퍼센트)이나 일본(5퍼센트)에 비해 낮다"고 전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려는 '구인 지표'



민간기업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에어부산 신입 승무원들이 업무교육을 받고 있다.

도 좋아지고 있다. 정부의 구인·구직 연결기관인 워크넷 및 고용지원센터에 지난 4월 기업이 등록한 구인 인원은 15만8천명. 작년 동기에 견줘 무려 68.1퍼센트(6만4천명)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고용회복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0퍼센트가량 늘려잡았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올해 6백대 기업의 시설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1백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투자율이 전년보다 16.9퍼센트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투자 증가는 취업 유발 효과로 이어진다.

전경련 강호성 선임연구원은 "6백대 기업의 올해 시설투자 계획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를 추정해보면 취업자 수는 1백4만4천명, 전년 대비 올해 투자 증가액에 따른 취업자 수는 11만4천명"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목표" 정부 노력 빛나

연초부터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현안으로 내세우고 매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것도 고용 개선에 기여했다. 정부는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및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고용친화적 세제·재정·산업정책, 노동시장 효율화, 인력양성 강화 등 중장기 고용 창출 대책을 추진해왔다.

주요국 고용 동향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2010.3)	미국(2010.3)	일본(2010.2)
실업률(%)	4.1	10.2	5.0
청년실업률(%)	9.0	18.4	9.2
취업자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1.2	-1.3	-1.3
증감 규모(만명)	26.7	-185	-80

지난 3월 중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약 4조9천억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희망프로젝트 40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3천 개, 중소기업 인턴 1만2천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기업에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지원해 22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대졸 미취업자와 실업자 33만명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별 일자리 창출 규모를 보면 △대졸자 등 청년층 대상 6만8천 개 △중장년층 44만7천 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만6천 개다. 이 가운데 △여성 일자리 14만 개 △지방 일자리 30만 개가 포함돼 있어 계층별, 지역별 일자리 안배가 고루 이뤄질 전망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서민이 OK할 때까지 "물가를 잡아라"

서민들의 가계를 피어나게 할 관건은 역시 물가다. 근로자 임금 수준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되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10원, 1백원에 울고 웃는 게 서민이다. 괜히 9백90원, 9천9백원짜리 상품이 인기 있는 게 아니다. '물가를 잡아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특명'이다.

5 물가 안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주부 서모(35) 씨. 3세, 10개월 된 딸 둘을 두고 있다. 미술 강사로 일하다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남편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매달 빠듯하게 가정을 꾸려왔다. 한참 입맛이 돋는 큰 딸, 그리고 분유를 먹는 둘째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 걱정이 컸다.

그러나 요즘 들어선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지난 연말에 비해 생필품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 그러다 보니 올 초 계획했던 지출 규모보다 10퍼센트 정도 덜 쓰고 있다고 한다.

"분유 8백 그램 1통 값이 지난해보다 1천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첫째가 좋아하는 과자값도 좀 내렸고, 세제나 주방용품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올해 소비자물가는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5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퍼센트 상승했다.

생필품 등 가격 떨어져 실제 지출 부담 줄어

유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시장의 동요를 억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퍼센트대 상승률에 그친 것. 물가가 정점이던 1월의 3.1퍼센트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3월의 2.3퍼센트보다는 높아졌으나,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강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강세 등을



동아DB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한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고려하면 매우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전반적인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도 4월 1.5퍼센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5퍼센트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물가 안정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 제공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눈에 띈다.

3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 세제, 라면 등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1백여 개 생필품 중 절반 정도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예컨대 식용유(9백 밀리리터)는 올해 1월 전후로 16.7퍼센트, 치약은 22.6퍼센트 값이 내렸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운영 중인 대형 유통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20개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을 1주 단위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tgate.or.kr)에 제공하고 있다.

4월부터는 전국 1백여 개 유통업체 80개 생필품으로 확대했다. 소비자로선 유통업태별, 브랜드별로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 저렴한 제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체 간에는 가격경쟁 구도도 잡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소비자들은 불황을 겪으면서 가격에 민감해진다”며 “불황을 경험한 뒤엔 가격의 탄력성이 커지므로 업체마다 ‘가격파괴’ 영업 카드를 뽑아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격경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가격 정보 공개와 관련해 소비자 의견을 조사했더니 20~60대 소비자 3백69명 중 42.5퍼센트가 가격경쟁에 따른 대형마트의 생필품 가격인하 효과를 실감했다고 답했다.

생필품 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불시에 제과업체 4곳을 점검해 업체들이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자제품 대리점과 도매상은 물론 일반 소매점에 대해서도 제품별 판매 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봄 작물 출하·비축품 방출해 농산물 가격 잡아

신학기만 되면 학부모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교복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대리점의 가격 인상, 메이저 교복업체의 담합 등을 감시하고 각 시도별 교육청 또한 교복 물려입기와 공동 구매 노력을 펼친 결과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주요 교복업체들은 신학기를 앞두고 출고가를 최대 10퍼센트 정도 인하했다. 대전 지역의 한 유명 브랜드 대리점은 지난해보다 30퍼센트 낮춰 판매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등 대학 관련 기구들이 등록금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45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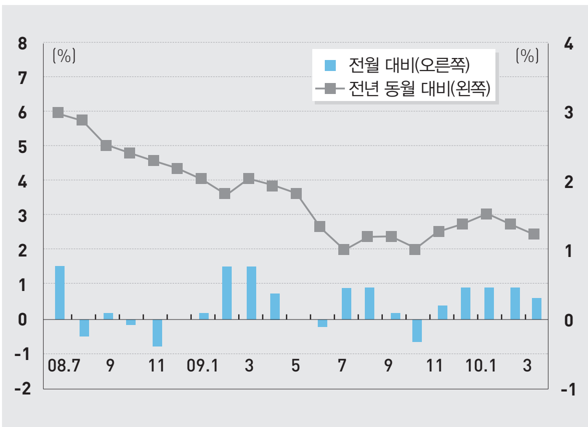
최근 이상저온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정부 비축분을 조기 방출(수산물 2천8백6톤)하고, 민간 비축분 출하에 호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는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수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품목별, 유형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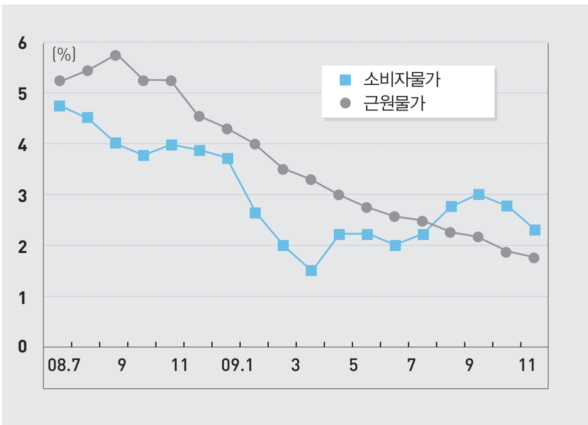
일단 정부는 2분기에도 소비자물가가 2퍼센트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영훈 사무관은 “봄 작물 출하가 본격화해 농산물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환율안정 효과까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물가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 · 유재영 기자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



근원물가 동향



"스스로 돕는 서민을 돕는다"

미소금융·보금자리주택·든든학자금 인기

무주택 26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준 '보금자리주택', 노동 일용직을 하다 구두수선점을 창업하게 해준 '미소(美少)금융',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소득을 얻은 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든든학자금'.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 '친(親)서민 3종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6 서민 정책

무주택 기간 26년, 매달 10만원씩 20년 가까이 불입한 청약저축 2천3백만원. 지난해 10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 첫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김창수(65·서울 구로구 구로동) 씨의 기록이다. 김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 74제곱미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에서도 노른자위 지역으로 주목받은 세곡지구에 입성하게 됐다.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불입액을 따져 순위를 정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방식에서 김 씨는 최상위 당첨권에 들었다.

경기 의왕시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 씨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조건 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해 당첨권에 들면서도 분양대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 그간 청약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정부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이 김 씨에게 서울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준 것. 현재 부인, 자녀 넷과 함께 전세 2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오는 2012년 말 드디어 '내 집'에 입주한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내 집 마련 이뤘어요

친서민정책의 대표주자인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2009년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보금자리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외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공급분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기간 등을 따져 철저하게 '집 없는 서민'에 초점을 맞춰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모두 1백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주택 수급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는 2012년까지 당초 예정된 4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를 더 늘린 60만 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자의 편의를 고려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당초 2018년 계획보다 6년 앞당겨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에서 돼지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지난 3월 미소금융 제주지점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덕분에 가게의 도배를 새로 하고, 고장 난 화장실을 고쳐 단골 고객들에게서 "확 달라졌다"는 칭찬을 듣는다. 박 씨는 연리 4.5퍼센트에 1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 제도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든든한 원군을 만난 것이다.

> **"친서민정책의 대표주자인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자활의지는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제도 '미소(美少)금융'도 인기다. 벌어서 갚는 든든학자금제 역시 서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용 노동직을 하던 이모 씨도 최근 미소금융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아 대중목욕탕 안에 자그마한 구두광택점을 창업해 신바람이 났다. 이 씨가 신용불량자이지만 자활 의지가 높다고 판단한 미소금융재단에서 무담보로 대출해준 덕분이다.

미소금융 덕분에 신바람 나는 창업 성공

이처럼 서민에게 '아름다운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미소(美少)금융'은 자활 의지는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제도다. 2009년 12월 15일 첫 미소금융 지점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연 데 이어, 5월 6일 현재 전국에서 35개 지점이 활동하고 있다. 서민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미소금융 지점을 1백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이들 지점은 4월 26일 현재 2만2천5백34명을 상담해 그중 8백39명에게 총 6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다. 재단 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출자 33명의 75.8퍼센트가 '매우 도



일러스트 · 이우정

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출 이자에 대해 '매우 저렴하다(91퍼센트)' '대체로 저렴하다(9퍼센트)'고 만족스러워했다.

미소금융대출 상품 중 창업 임차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는 연 4.5퍼센트,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 대상 대출 이자는 연 2퍼센트(거치 기간 무이자)다. 신용등급 7~9등급에게 제도권 금융이 사실상 막혀 있고, 사설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가 최고 49퍼센트인 데 견주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대학 4학년인 전모 군은 졸업을 1년 앞두고 '신용유의자'가 됐다. 지난해 5월 설립된 국가장학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자 신용불량자와 같은 뜻인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것. 전 군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할 뻔했으나 새롭게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졸업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올해 첫 도입한 든든학자금은 졸업 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백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 군과 같은 신용유의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분위 1~7분위에 속하면서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은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다. 올해 이런 기준을 통과해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0만9천4백26명.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각 60 대 40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총대출은 39만5천3백87건. 이 가운데 28퍼센트가 올해 첫 시행한 든든학자금 대출이다. 대출 액수는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한 학기당 생활비 1백만원 이내다.

든든학자금으로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닌다

이러한 3대 서민대책 외에 정부는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공감 대책'은 지난 2년간 국민 아이디어 2백66개를 실제로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아이디어를 실행해 1백39만명에게 총 7백11억원을 돌려줬고,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 개선' 아이디어를 실행해 부부 간 분양권 지분 증여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대책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친서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천안함 사건 불구 신용등급 높이 평가

한국 A1으로… 무디스, 한미동맹 등 안정성 인정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를 공식 인정했다. 무디스는 지난 4월 중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다. 13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국가신용등급은 국내 금융기관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기업의 해외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7 국가신용등급 상승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외국인은 증권시장에서 2천1백33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지수를 연중 최고치인 1735.33으로 끌어올렸다. 이전 사흘간 '팔자'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날 개장 직후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행진을 보였다.

그러다 장 막판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등급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시간 만에 1천억원가량의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됐다.

대신증권 구희진 리서치센터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상황이 좋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외국인 주문 창구인 메릴린치의 김경덕 전무는 "한국의 경기와 재정상황에 대한 무디스의 긍정적 평가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1 상향 조정

우리 경제가 이른바 'IMF 사태'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1997년,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A1에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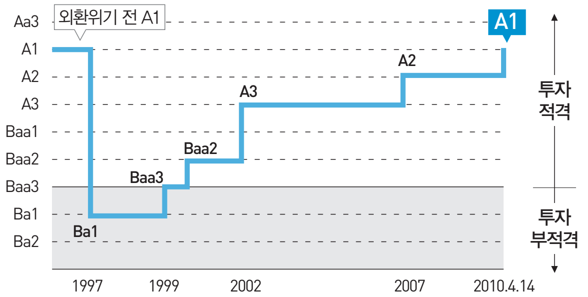
지난 4월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연합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이 당분간 A2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은 A1으로 올랐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뚝 떨어뜨렸다. 이후 무디스가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1을 회복하진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인 2007년에도 A3에서 A2로 올라서는 데 그쳤다.

따라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끌어올린 일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먼저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A등급 이상의 국가 중 신용등급이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중 무디스가 처음. 무디스는 4월 1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빠른 경제 회복세를 이룬 점을 등급 상향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2천7백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 등에 힘입어 대외채무 상환불능 우려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이번 상향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또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도 시장이 차분한 반응을 보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무디스의 이번 상향 조정은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국가신용등급이 금융시장과 국민적 자긍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무디스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적 대응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무디스 면담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연례협의도 해당부처 1급으로 상향 조정해 책임감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외채, 공기업 부채 등 핵심 사항은 설명자료를 작성해 수시로 관련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앴다.

특히 핵실험, 후계계승 등 최근 북한 상황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신용평가사의 최고위층과 애널리스트들에게 우리 금융시장 상황 등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디스의 이번 상향 조정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외국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보여왔던 지나친 우려와 오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실험, 후계 문제 등으로 요동치는 최근 북한 상황이 현재로서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국제사회서 인정받아"

13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국가신용등급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과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발표한 직후 국내 10개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15개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의 신용등급도 덩달아 A1으로 올랐다.

이번 상향 조정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범진완 사무관은 "국가 리스크 감소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좋아지는 추세"라며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개선돼 주식시장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이 선진국 클럽 이끌고 있다”

해외 언론이 극찬하는 한국경제

한국은 강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데 이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보란 듯이 이겨내자 세계인들은 한국경제의 저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인한 한국경제의 원동력을 살펴봤다.



일러스트 · 김영민

'한국이 중요한 이유(Why South Korea matters)'. 지난 3월 25일 미국 〈타임〉지 아시아 기업담당 특파원 마이클 슈먼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는 그간 한국의 성장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가 한국을 특별히 여긴 까닭은 1960년대 짐바브웨, 이라크보다 가난했지만 이제 세계 정상권을 다투고 있는 한국경제의 저력 때문이었다. 그는 교훈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한국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해외 언론매체 등이 한국경제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이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내는 조짐을 보이자 한국을 주목하는 해외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한국경제, 회복하다(미국 〈워싱턴포스트〉 2009년 9월 8일자)' '한국, 기적의 원천(프랑스 〈르피가로〉 2009년 11월 18일자)' 등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한국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지난해 11월 스위스의 〈라게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급감과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맞고도 빨리 제 자리를 찾은 이유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꼽았다. 〈라게피〉는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대처한 것과 달리 스위스 정부는 늑장 대처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해외 언론이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면서부터다.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은 한국의 원전 수주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강한 집념이 실현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해외 언론이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면서부터다.

"한국은 위기관리에서 만점 받은 국가"

〈로이터통신〉은 이날 "UAE의 결정은 놀라운 선택"이라면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아시아퍼시픽에너지컨설팅의 앨 트로너 사장의 말을 인용해 "UAE의 선택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은 한국의 원전 수주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강한 집념이 실현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지자 지난 2월 초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 중국과 같은 세계 열강과 대적할 최고의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적인 정보 서비스 기업인 톰슨로이터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아시아 4위 경제국인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 이어 미래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 2위를 차지했다는 것. 톰슨로이터는 G20 국가의 투자와 무역, 생산성, 국가저축, 경상수지 등의 항목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 기업은 "한국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G20 국가 중에서 지난해 경기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뉴스위크〉는 '한국 알리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 클럽을 이끌고 있다"며 "한국은 올해 GDP 성장률 4.4퍼센트를 예상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내용의 기사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가 사설을 통해 "한국기업으로부터 배울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일본시장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한국 기업의 대두가 놀랄 만하다"며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한국 기업의 강세를 꼽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UAE 원전 수주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핵심으로 '원자력'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에 이어 원자로를 차기 주요 수출품목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2030년까지 원자로 판매를 통해 약 4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치러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저력을 한국경제와 연관시켜 보도한 기사들도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 '김연아 선수 금메달 획득 이후 자신감 회복한 한국경제'란 기사에서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인들이 국내 경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됐다"며 "한국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능가할 능력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IMF 외환위기 이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들의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다수 외신들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고, 4월 말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했다"면서 "한국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만점을 받은 국가"라고 평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가채무 GDP 대비 36% 불과 선진국보다 양호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다지만 걱정되는 점은 없을까. 가계부채, 국가채무, 체감경기 부진, 출구전략 지연 등 최근 언론매체 등에 자주 오르내리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부담 적어

대부분의 가계부채를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우량신용등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위험부담이 작은 편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4, 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64퍼센트, 자산의 7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1~4등급의 우량등급이 차지하고 있는 대출 비중은 2005년 말 55퍼센트에서 2008년 말 61퍼센트, 2009년 말 67퍼센트로 늘어났다.

또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데다 은행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하다. 2010년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4퍼센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36퍼센트이며 은행 가계대출 대손충당금(대출금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 적립률은 2007년 말 2백46.5퍼센트, 2008년 말 2백43.9퍼센트, 2009년 말 2백63.6퍼센트로 충분하다.

정부는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기반을 늘리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 당기순이익 2조 증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할 수 없다. 총부채 규모보다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당기순이익 등이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하다.

2009년 공기업의 자산은 3백52조원으로 전년 대비 42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백1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1천억원이 증가해 자산이 부채보다 6조원 더 늘었다. 또 당기순이익도 2조3천억원으로 2008년 3천억원보다 2조원이 증가하는 등 실적이 개선됐다.

더욱이 2009년 부채증가액 36조1천억원은 전년도 부채증가액 38조7천억원에 비해 2조6천억원이 감소해 부채의 증가 속도는 낮아진 반면 자산은 전년도 증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핵심은 지급가능성에 있다. 지난 5년간 대부분의 공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자산도 함께 증가해 지급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최근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경비 등 관리비를 절감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집행의 효율성 개선, 예산편성 시 정부 협의 강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중 선진국 비해 양호

우리의 국가채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퍼센트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평균이 80.2퍼센트인 것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증가 속도에서도 최근 5년간(2006~201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평균증가율은 4.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1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0년 G20 국가의 국가채무 비중이 2007년에 비해 17.8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5.4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2009년 3월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2011년 국가부채 수준이 3번째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2013~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일러스트 · 남동윤

GDP 성장세 지속… 체감경기 좋아질 것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 개선도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GDP 성장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7.8퍼센트로 나타났다. 국내총소득(GDI)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퍼센트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도 3월에 26만7천명이 증가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에 의한 고용이 19만2천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퍼센트 상승해 2009년 10월 이래 줄곧 2퍼센트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LTV·DTI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9년 4분기부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양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을 지난해보다 0.1퍼센트 포인트 높은 58.7퍼센트로 높이기 위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취업 알선,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지원을 비롯해 취업장려금,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5만 개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적·예방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외환위기 때는 대규모 정리방식의 사후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은 드러난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예전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실 우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기업 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4천8백74개의 평가 대상 업체 중 5백91개 회사(건설·조선·해운사 46개, 개별 대기업 33개, 중소기업 5백1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해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열사 매각 등 자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등 구조조정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연합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미흡하나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체감경기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 개선도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 맞춰 '출구전략' 진행

재정기조 및 예외적이었던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에서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2009년 5퍼센트에서 2010년 2.7퍼센트로 줄였다. 금융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올해 6월로 종료하고, 보증 비율도 2009년 95퍼센트에서 올해 상반기 90퍼센트, 하반기 85퍼센트로 축소한다. 또 시장안정을 위해 확대했던 원화, 외화 유동성을 축소 회수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여건을 볼 때 고부채 유럽 국가의 신용불안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와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움직임이 있고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민간소비 및 고용 개선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민간소비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퍼센트 늘어났고, 올해 3월 민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2천명 늘어났다.

그 밖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 등 저금리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제 상황에 맞춰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산층 축소' 정부 노력으로 차단 성공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은 정부의 노력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전국 가구(1인가구 및 농가 포함)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63.2퍼센트로 동일하다. 또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8년 0.315에서 0.314로 소폭 개선됐다.



동아DB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워크아웃 발표 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김영기 수석부행장(왼쪽)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급격한 고령화로 1인가구 증가가 중산층 감소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동적 복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 등 중산층 복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위해 만전 기할 것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퍼센트 올라 3개월 연속 2퍼센트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배추, 무, 파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의 강세는 이상저온 등 기후 악화에 따른 생육 부진과 병충해 발생 때문이다. 올해 봄은 최근 40년 동안 비 오는 날은 가장 많았고, 일조량은 가장 적었다. 게다가 1월부터 4월 사이에 제주 인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날도 지난해 34일보다 훨씬 많은 59일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4월에 지난달 대비 배추 33.7퍼센트, 양파 62.2퍼센트, 무 32.9퍼센트 등이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대비 0.9퍼센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수산물은 수온저하와 기상악화에 따른 조업 차질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비 2.6퍼센트 올랐다.

하지만 날씨가 예년 기온을 되찾고 5월부터 봄 작물의 출하가 본격화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4.7퍼센트가 늘어나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민간 재고물량의 출하를 유도하며, 영농기술 지도를 통한 농산물 재배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경제위기 극복 평가와 이후 과제

상반기 경기부양책 충실히 집행 하반기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해야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한 데는 통화스와프 체결, 재정 조기 집행 등 정부의 침착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대외발 악재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함께 시작된 금융경색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2008년 9월 리먼의 파산과 함께 금융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적 실물경제 위기 국면에 빠지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위기 당시 해외 자본의 움직임이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2008년 10월의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 2백50억 달러를 유출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유출된 자본이 5백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1년간 유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 동안에 빠져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환율은 1천6백원 선 근처까지 폭등하고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경색에 빠졌다.


LG텔레콤

경제위기는 극복했으나 일자리 창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 현장.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외환시장의 불안 국면에서 정부는 미국과 3백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일단 자본 유출이 시작되니 2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도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를 일시에 해결한 것이다. 2008년 경상수지는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수지는 5백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09년에는 경상수지가 4백30억 달러 흑자에 자본수지는 3백억 달러 흑자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시장이 안정됐다.

발빠른 정부 대책 경제위기 돌파구 찾아

2009년은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선방한 해였다. 성장률을 보면 이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9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4퍼센트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성장률은 플러스 0.2퍼센트로 드러났다. IMF의 예측오차가 무려 4퍼센트 포인트 이상이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선전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 3위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경제팀의 호흡도 잘 맞았고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위기 국면에서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한 정부보증이 신속하게 지원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다. 민간 부문의 수출도 호조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2008년 4분기에 경기 저점을 찍고, 2009년 1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은 전(前)분기 대비 소폭 증가해 2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했다.

2010년이 아직 8개월 정도 남았지만 2010년은 2009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장률은 5.2퍼센트 정도로 예측되며 투자도 11퍼센트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우리 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가 열렸다.

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든 1백50억 달러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흑자 폭은 줄지만 여전히 충분한 흑자다. 물가는 안정되어 2, 3퍼센트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겠지만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소폭 강세로 전환돼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안정세가 두드러지면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 부동산 가격은 시장변수의 성격과 정책변수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 요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위기 극복했지만 출구전략엔 신중 기해야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최근 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발 악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해외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이 드는 것이다.

2010년 위험요인은 주로 대외발 악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정위기가 가시화하면서 그리스에 1천1백억 유로의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유럽도 문제다. 동유럽에 엄청난 대출을 해준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동유럽 경제의 하락과 함께 부실화할 경우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심하기 이르다. 물론 이 분야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유동화가 적어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미국경제를 어렵게 몰아갈 수 있다. 일단 미국경제가 다시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상당 부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소위 '고용의 탈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면서 수출산업이나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바람에 제조업이 발달해도 중간재나 부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연관효과가 줄어들면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용의 탈산업화를 전제로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교육, 관광, 보건, 의료, 회계, 법률 등 고용 창출능력이 큰 고급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남은 상반기에는 충실하게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전후에 국제 행사가 다양하게 예정돼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올해는 우리의 국격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다양한 씨앗을 뿌리는 계기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G



영친왕의 곤룡포.
어깨와 가슴에 수놓아진 용 문양은
왕의 신분을 나타낸다.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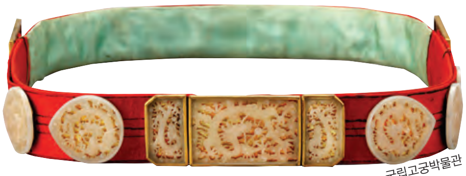
조선 왕실에선 무얼 입었을까?

'영친왕 일가 복식 특별전' 국립고궁박물관서 5월 2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922년 영친왕이 순종황제와 종묘에 결혼보고를 올린 후
한 팔에 진(晉) 왕자를 안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적의를 입은 영친왕비.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의 복대.

임금이 곤룡포를 입고
정사를 볼 때는 반드시 머리에
익성관을 썼다.





영친왕이 곤룡포를 입을 때
신었던 목화.



어린 왕자가 입던
누비저고리와 풍차바지.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비가 차고 다니던 노리개의
일종인 진주 두루주머니.



왕실의 수저를 넣던 수저집(왼쪽)과
붓을 담던 필낭.



영친왕비가 대례복인 적의를 입을 때
함께 착용한 머리 장식.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왕실에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있었다. 5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실의 왕과 왕비에게만 허락된 용과 봉황 문양도 그런 예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마주한 그 문양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이미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왕의 곤룡포와 왕비의 적의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이 조선 왕실의 상징은 날아갈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일가가 착용한 의복과 장신구 3백33점을 모아 '영친왕 일가 복식 특별전'을 열고 있다(4월 27~5월 23일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이번에 전시된 복식 유물은 1991년 5월 한일 정부 간 협상에 의해 환수됐다. 이는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한 성공 사례요, 영친왕과 영친왕비, 진(晋)과 구(玖) 왕자까지 왕실 한 가족의 복식 유물이 한꺼번에 전해진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영친왕비의 적의는 광무(光武) 원년(1897년)에 제정된 적의제도(翟衣制度)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1백10여 년 전 왕실 복식의 전모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유물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전시 유물 가운데 영친왕의 곤룡포와 영친왕비의 적의, 구 왕자를 위해 만든 자적용포 등의 궁중 예복은 옥대 같은 예복에 딸린 의장품과 함께 궁중 의례복식의 구성과 형태, 착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또 곤룡포, 적의, 대홍원삼 등은 영친왕과 왕비가 1922년 4월 순종황제와 종묘에 결혼보고를 올리는 예식에서 착용한 의례복으로, 당시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자료로 남아 있다.

또한 어린 왕자를 위한 귀여운 누비저고리와 풍차바지, 영친왕의 조끼와 마고자 같은 평상복들도 공개돼 당시 궁중에서의 일상적 의생활도 엿볼 수 있다. 영친왕비가 예복과 함께 착용한 각종 비녀와 꽂이, 댕기 등의 머리 장식과 노리개, 가락지 등의 치레 도구,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향낭과 귀주머니 같은 장신구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 이들 장신구를 싸서 넣어둔 색색의 패물 보자기와 비단으로 만든 장신구 상자 등에서도 당시 왕실의 정성스러운 포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왕실 가족 복식유물 한자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정계옥 과장은 "이번에 전시된 영친왕 일가의 복식 유물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장인들이 최고의 솜씨와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어서 당대 궁중 복식과 공예 기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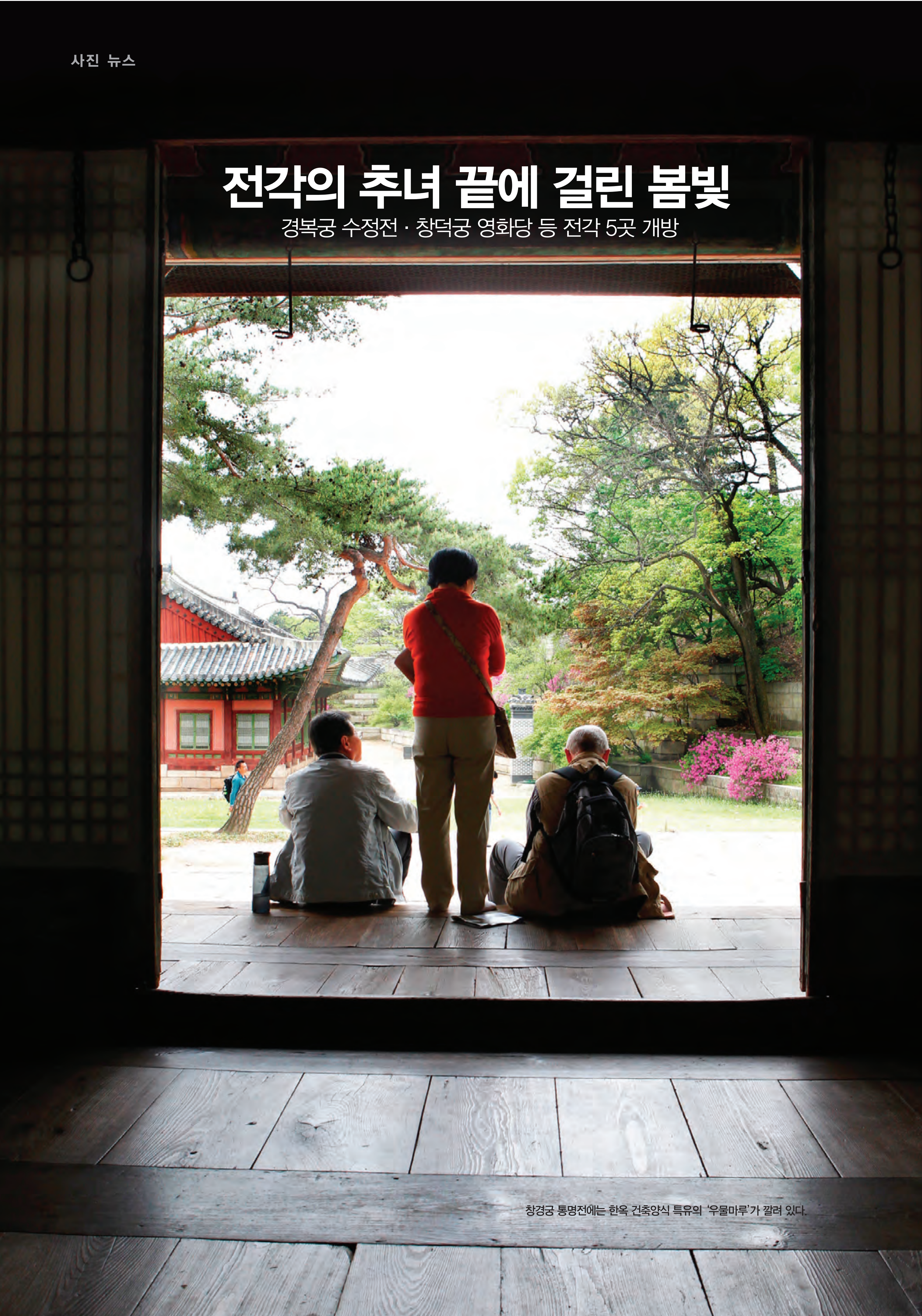
이들 유물은 그 역사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65호로 지정됐다. 이번 전시회는 이를 기념하면서 국립고궁박물관의 첫 번째 소장품 도록 발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G

글·김지영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문의 Tel **02-3701-7651,7656 www.gogung.go.kr**

전각의 추녀 끝에 걸린 봄빛

경복궁 수정전 · 창덕궁 영화당 등 전각 5곳 개방



창경궁 통명전에는 한옥 건축양식 특유의 '우물마루'가 깔려 있다.





◀영조의 친필 현판이 걸린 창덕궁 영화당. ▶서양 건축양식을 가미한 덕수궁 정관헌.

"궁궐 나들이로 사람의 온기와 숨소리를 불어넣으세요." 문화재청이 봄부터 가을까지 전각(殿閣·궁궐 건물) 5곳을 개방하는 것을 반기며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이 쓴 글이다. 궁궐 전각 내부가 개방된 것은 2007년 경복궁 수정전에서 초등학생 훈민정음 서문쓰기 행사나 2009년 한글 학술행사가 열렸던 경우처럼 극히 드물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방이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더 잘 보존되는 우리나라 목재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고, 내부 모습을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방하는 전각은 경복궁 수정전, 창덕궁 영화당, 창경궁 통명전, 덕수궁 정관헌, 종묘 망묘루다. 또 5월부터는 덕수궁 중화전 내부를 매주 토요일 연중 개방하고 있다.

경복궁 근정전 서쪽에 있는 수정전은 세종 때 집현전으로 사용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고종 때 재건한 곳으로, 경회루를 바라보는 경관이 빼어나다. 영화당은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연꽃이 아름답게 피는 창덕궁 부영지 서쪽에 있으며,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이자 연회를 베풀던 곳이었다.

왕과 왕비의 침전이던 창경궁 통명전에서는 우물마루를 볼 수 있다. 한옥 양식 특유의 우물마루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 장선을 지른 뒤 우물 정(井)자처럼 사이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장선을 붙이고 마루청판을 끼워 맞춘 것이다.

덕수궁 정관헌은 발코니와 벽돌 장식 등 서양식을 가미한 곳이다. 종묘 들머리에 있는 망묘루는 제향 때 임금이 머무르던 곳으로, 지금은 문화재 관련 책이 꽂혀 있어 독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제국의 정전(正殿)인 중화전에서는 고종 황제가 앉았던 용상과 일월오봉도 병풍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문틈으로만 바라보던 궁궐 내부, 완연한 봄날에 궁궐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 G 글·최은숙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문화재청 Tel 042-481-4746 www.cha.go.kr

궁궐 전각 개방 시간(4~10월)

궁궐 전각	개방 시간*	휴무일	연락처
경복궁 수정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화	02-3700-3900
창덕궁 영화당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매주 월	02-762-8261
창경궁 통명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화	02-762-4868
덕수궁 정관헌 중화전	오전 9시~오후 9시 오전 9시~오후 4시(토)	매주 월	02-771-9951
종묘 망묘루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화	02-765-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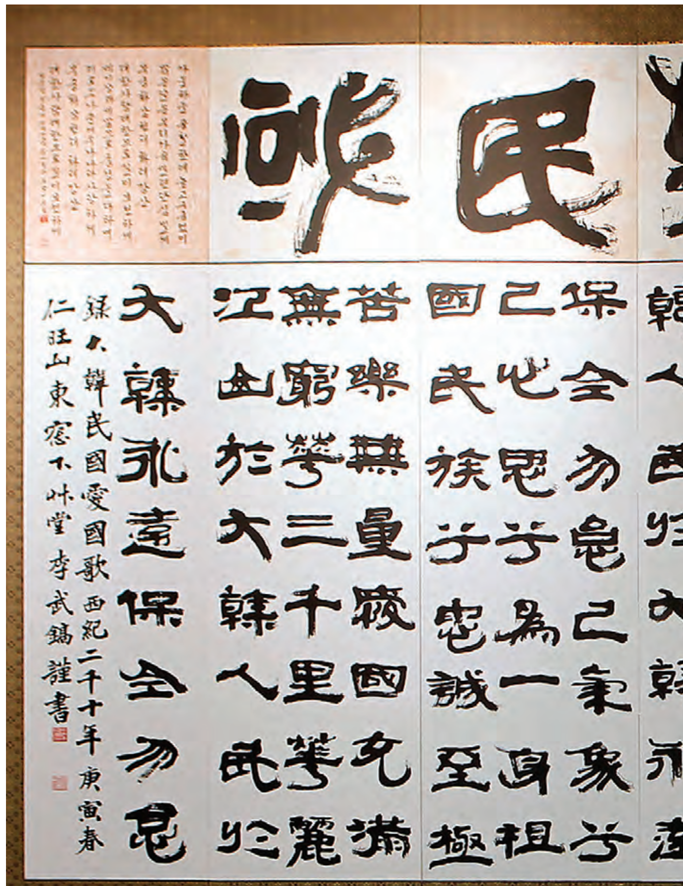
*입장 시간은 개방 시간보다 30분~1시간 빠름

궁궐 전각 개방으로 세종 때 한글 창제의 산실인 집현전으로 사용했던 경복궁 수정전의 내부에 들어가 거닐 수 있다.





서예가 이무호 선생은 “음과 양의 원리로 쓴 글자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기운을 전달해준다”고 말했다.



이무호 선생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이란 제목 아래 애국가 1~4절을 한자로 써 높이 3미터, 폭 10미터의 대형 병풍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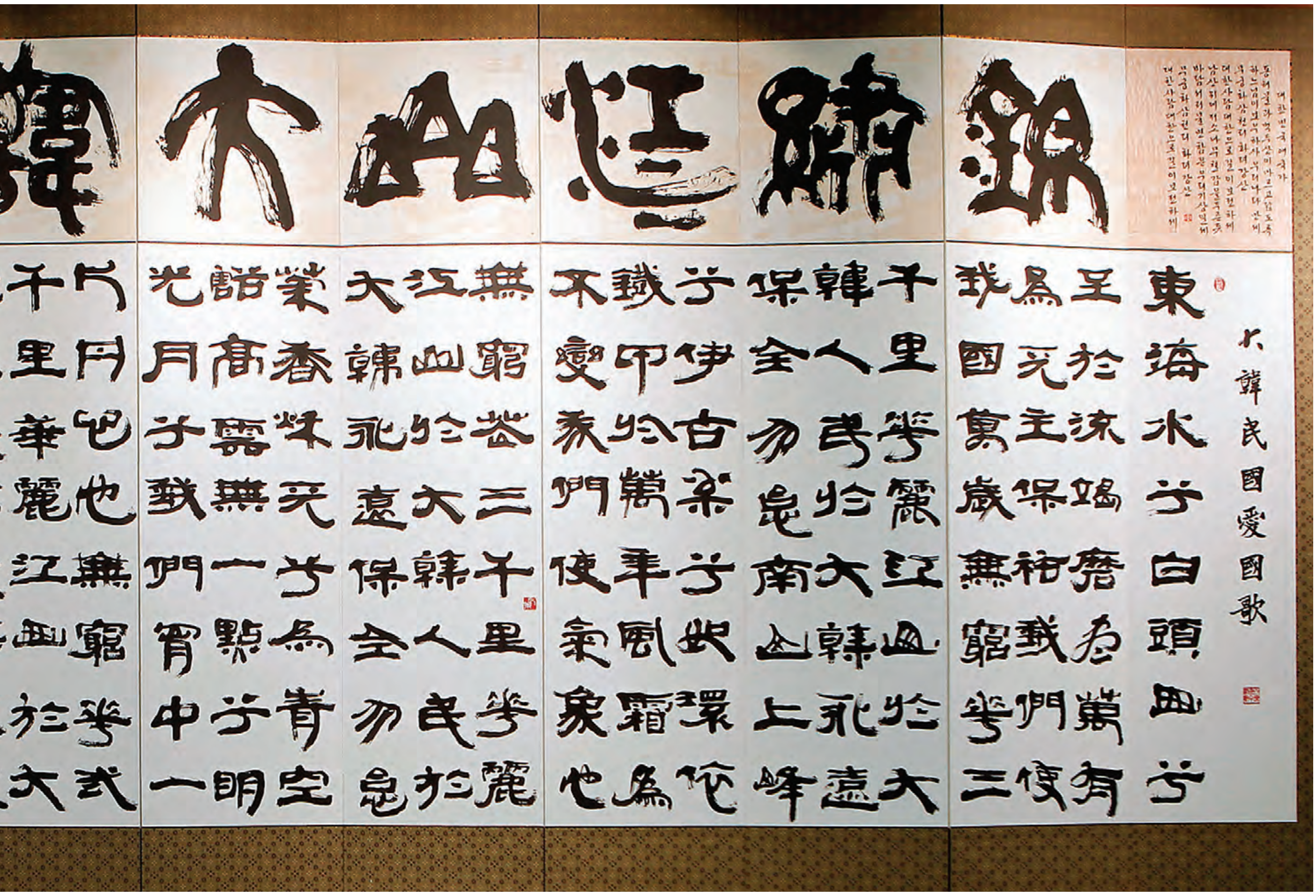
“위엄있고 단호하게” 붓으로 대한민국을 말하다

5월 14일까지 한국서예관 개관 기념 초대전 여는 서예가 이무호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얀 한지 위를 붓끝이 힘차게 내달린다. 거침없이 한 번에, 끊어짐 없이 곧게. 점과 선이 획을 이뤄 글자를 만들어낸다. 글자 그대로 서예(書藝)다. 문자를 소재로 만들어내는 조형예술. 서예가 이무호(63) 선생은 “서예는 법(法)을 지켜 예(禮)를 창조하고, 그 예를 통해 도(道)에 입문하는 예술”이라고 운을 뗐다.

‘소박한 초가집’이란 뜻의 초당(草堂)은 그의 아호(雅號)다. 그러나 차츰 잊혀가는 서예를 살리기 위해 육십 평생 서예 발전과 대중화 외길만 고집해온 그의 노력은 소박하다 할 수 없다.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운영위원장, 중국 사천연합서법예술학원 객좌교수 등을 맡으며 그간 국보 1호 숭례문 현판 해설문, 고산 윤선도 시비, 국보 242호 울진 봉평 신라비 등 여러 작품에 글씨를 새겨왔다.

이무호 선생은 서울 성북동에 자리 잡은 한국 서예관 개관을 기념해 초대 전시회(5월14일까지)를 열고 있다. 이 중 관객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작품이 있었다. 높이 3미터, 폭 10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병풍 안에 담긴 애국가였다. ‘금수강산(錦繡江山)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제목 아래 1절부터



4절까지 빼곡하게 쓰인 애국가는 한자로 쓰였음에도 한민족의 절개와 위상을 실감할 만큼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한자는 중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방의 국가들이 계속 써온 문자입니다. 상형문자로 만들어진 한자는 그 뜻을 정확히 몰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서예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지닐 때 더욱 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해줍니다."

안중근 의사 서거 1백 주년 기념 시, 무궁화 관련 헌시 등 이무호 선생은 예술로 승화된 한자 속에 우리나라의 기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특히 25미터가 넘는 거대한 화선지에 한자 퍼포먼스를 즐겨 하며 서예의 '기(氣)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서예로 한자의 미적 가치 알리고 싶어"

"1999년 영국 왕실 초청으로 '목숨 수(壽)'자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음과 양의 원리로 쓰인 글자를 보면서 무궁무진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죠."

5세 되던 해 조부의 권유로 서예를 접한 이무호 선생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조차 입학하기 힘들었지만 붓만큼은 손에서 떼지 않았다. 1972년 상경한 후에도 12만 장이나 되는 종이를 구해다가 매일 1백 장씩 글씨를 써나갔다. 그러던 8년 뒤 우연히 중국 서예계의 국부로 추앙받던 대만의 장대천(張大千)기념관을 방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서예 공부에 더욱 매진했다.

이후 이무호 선생은 최선을 다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필체를 두루 공부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태극서법이다. 음양원리를 접목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닮아가는 이 서체는 3백여가지 수에 이른다.

이무호 선생은 더 많은 이들에게 서예가 주는 한자의 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용의 눈물> <태조왕건> 등 사극 드라마의 타이틀 로고와 세트장 현판 등을 써왔고, 요즘은 도예가 법행 선생과 손잡고 도자기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흘러가버린 역사를 되짚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는 문화로 전달해내는 것은 서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서예관 Tel **02-741-8881**

한국직업방송 알짜 구직정보 24시간 서비스

하루 24시간 취업정보와 일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국직업방송'이 지난 4월 14일 개국했다. 한국직업방송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 전문가들이 만드는 독립 채널로 워크넷을 비롯해 잡코리아, 스카우트 등 국내 주요 취업포털의 알짜 구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창업특강', '알바24'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도 알려준다.

특히 '백수잡담'이나 '직업기행, 그곳에 가면' 등의 코너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한국직업방송(TV)은 하루 30만명이 방문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워크넷(On-line), 직업지도·직업소개·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Off-Line)와 연계해 공신력 있는 고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허윤선 사무관은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24시간 내내 쉽게 얻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직업방송은 위성방송과 IPTV, 지역 케이블TV에 송출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Tel **02-2110-7261 www.tvworknet.or.kr**

하루 24시간 내내 취업정보를 전해주는 한국직업방송이 4월 14일 개국했다.





퇴직공무원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세무와 법무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코너가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에 개설됐다.

퇴직교사 등 참여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퇴직공무원동호회(국세동우회) 등 퇴직공무원 단체, 서울시 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재래시장 상인의 세무·법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코너'를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 안에 개설했다.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이성규 사무관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오전엔 물건 구입 등으로 바쁘고 오후엔 장사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말고는 개인적인 업무를 볼 여유가 없다"며 "이들의 행정 처리 등을 돕기 위해 상가번영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세무공무원(현 세무사), 법원공무원(현 법무사) 출신 퇴직자 2명이 상담 도우미로 나서 시장 영세 상인들의 세무, 법무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도우미로 참여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세무, 법률업무 분야 전문가들이며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서울풍물시장, 돈암동 제일시장 등 재래시장 두세 곳에 상담코너를 추가로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서비스를 전국 재래시장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교사가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에도 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공부방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한자, 컴퓨터, 예절 등을 지도한다.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Tel **02-2100-4408**

LH공사, 임금 반납분으로 소액서민금융 지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해 업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LH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말까지 최대 32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LH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는 뜻에서 내놓은 임금 반납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기부금을 'LH 행복 Loan' 계정을 통해 따로 관리하며 주로 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생계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은 1천여 명까지 평균 3백만원을 무담보로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연간 2~4퍼센트다.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직통합 후 소액금융지원 사업과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사랑의 김치나눔 사업 등에 52억원을 기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Tel **02-6362--0298 www.ccrs.or.kr**

동아DB



정부는 친환경차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마트에선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행정안전부는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대체' 정책을 4월 28일 서울 송파구청 관내 대형 할인마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서울시 8개 자치구, 9월 중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쇼핑봉투로 1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게 하는 방안이다. 매장에서는 쇼핑봉투로 활용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쇼핑용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디자인을 개선해 관내의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공급했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종량제 봉투와 같다. 마트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자치구 구분 없이 수거 처리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시민들 사이에 종량제 봉투 사용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 Tel **02-2100-3818**

경형 전기車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천 씨씨 미만이면서 경형 자동차 규모인 차량(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에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됐으나 지금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의 규모가 경차이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차량 가격 약 1천5백만원)를 사면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모두 1백5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형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인 연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사무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Tel **02-2100-3942**

소설가 조경란의 '엄마에게 쓰는 편지'

엄마, 엄마는 내 행복의 첫번째 조건이야

2008년 다섯 번째 소설집 〈풍선을 샀어〉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조경란 씨. 그에게 어머니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과 같은 존재다. 언제나 온전한 사랑으로 딸의 집필활동을 묵묵히 도운 그의 어머니 장금례 씨는 지난 5월 3일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 조경란 작가가 어머니에게 마음으로 쓴 편지를 〈Weekly 공감〉에 보내왔다.



소설가 조경란 씨는 "어머니의 한결같은 지지가 없었다면 소설가의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 엄마한텐 유독 무뚝뚝하고 쌀쌀맞고 잔소리만 해대는 제가 오늘은 엄마께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드리는 편지는 제목을 붙인다면 언제나 '버릴 것 없는'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버릴 것 없이, 언제나 온전한 사랑을 주는.

엄마, 며칠 전에 저에게 푸슈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 액자 해서 걸어놓고 싶다고 하셨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엄마가 좋아하던 시. 저는 갑자기 엄마가 왜 그 시 이야기를 다시 하나,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엄마는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은 즐겁지만 다시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오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같이 이 즐거운 추억의 힘으로 어렵고 슬픈 일들을 건너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엄마는 알고 계신 거겠죠. 그 시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엄마. 몇 년 전, 그 겨울밤, 기억하세요? 엄마가 성인이 된 저에게 처음으로 호통이란 걸 친 날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너무 오랫동안 글이 안 써져 좌절에 빠져 있던 제가 밖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날이었어요. 가족들은 다 잠이 들었고 엄마와 저, 이렇게 둘이 식탁에 마주앉았어요.

그날 제가 엄마에게, 적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픈 말을 했죠. 저는 말했어요. "엄마,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아직도 그 문장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버리자 정말 그게 사실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와락 몰려왔어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엄마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기운 내. 넌 꼭 좋은 작가가 될 거야!"

그렇게 저를 단호한 소리로 야단치고 간절히 저를 설득시키는 엄마를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엄마 호통 소리가 제 정

수리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한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 말에, 엄마의 그 바위 같은 모습에 기대고 싶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드물지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엄마, 그날 제가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 사과드릴게요. 누구도 실패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단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있을 뿐. 자랑스러운 엄마의 딸로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거예요.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고마워요. 제가 작가가 된 것은 전적으로 가족들 덕분입니다.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한 채 이십대를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낼 때, 그때 정말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맏딸인 저에게 직장에 가라, 남들처럼 좀 살아라, 아무도 싫은 소리 한 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지켜봐주셨지요.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오직 책만 읽었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작가가 되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불행하진 않아도 지금처럼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삶을. 저라는 한 사람은, 제가 본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읽은 것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것이 더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선배 여성작가들이 그런 농담을 해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여성'작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서 아내처럼 밥을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정성껏 밥해주시는 엄마 때문에라도 꼭 좋은 작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엄마.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배운 언어입니다.

올해는 어버이날이 바로 엄마 생신이군요. 가슴에 카네이션 꼭 달아드릴게요. 카네이션 꽃말은 존경과 사랑입니다. 집은 우리가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요. 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 나의 집. 그 중심에 늘 '어머니'가 계시기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G 사진 · 조영철 기자



5월 3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에서 소설가 조경란 씨가 수상자인 어머니 장금례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2010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6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일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2010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매년 어버이날을 즈음해 시상하는 이 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어머니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기리고 자녀 예술교육의 본보기로 삼고자 1991년 제정됐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장한 어머니'는 소설가 조경란 씨의 어머니 장금례(61) 여사를 비롯해 화가 하태임 씨의 어머니 류민자(68), 성악가 연광철 씨의 어머니 허선옥(62), 해금 연주가 강은일 씨의 어머니 박옥자(69), 영화배우 전도연 씨의 어머니 이응숙(72), 현대무용가 양정수 씨의 어머니 정순자(84) 여사 등 6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문화예술기관과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예술계 각 분야의 전문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상패와 대나무 무늬로 장식한 순금 18돈짜리 비녀 '죽절잠'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을 맡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장한 어머님들께 직접 상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해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의 자녀 예술인과 가족, 친구들이 '장한 어머니'에게 바치는 편지 낭독, 연주, 노래, 무용 등 다채로운 사은공연을 펼쳐 장내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글 · 김지영 기자

“단돈 1천원에 몸과 마음 고쳐줍니다”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찾아온 이주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의 한국 생활이 ‘꿈’만큼 녹록지는 않다. 일하다 몸이 아파도 치료받기 어렵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들이 쉬는 일요일엔 문 여는 곳이 없다. 이런 그들을 돕기 위해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은 매주 일요일마다 문을 연다.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바르샤(30) 씨는 치통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 그러나 치료비가 너무 비쌀까봐 병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 있다. 회비 1천원만 내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귀를 의심했다. 일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면 병원에 가기도 힘든데 단돈 1천원만 내면 일요일에도 진료해주는 병원이 있다니.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이하 희망세상)’을 찾았다.

큰길가의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이곳은 ‘일요병원’이란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알려진 무료 진료소다. 이주노동자라면 누구나 맨 처음 가입회비 명목으로 1천원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며 치료는 물론 약도 무료다. 필리핀 출신인 줄라이(34) 씨는 희망세상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혈압이 2백 밀리미터 에이치지(mmHg)를 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내과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한방의, 약국이 함께 있는 종합진료센터 희망세상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가입비 1천원… 일요일에 진료

등록 이주노동자만 5만명에 달하는 인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은 인천시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6개 병원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희망세상은 아무 요구조건 없이 환자를 봐주기 때문에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찾아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은 평일이나 토요일에 쉬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문을 연다.





희망세상은 치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한방, 약국까지 함께 있는 종합진료센터다.

거의 유일한 곳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 10명이 참여해 돈을 모아 의료 기자재를 마련하고 치과기구 등을 기부받아 처음 시작한 진료소는 2006년에 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제공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계속했다. 6백61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한글 및 컴퓨터 교실, 공연장 등이 함께 있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무상 임대해준 독지가의 재정 사정으로 1년 전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비워줘야 했다.

지난해부터 문을 연 지금의 부개동 진료소 역시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원이 가능했다. 평소 다니는 부평구 성당 신부에게서 진료소의 사정을 듣게 된 강마리아 할머니(86)가 상가를 그냥 쓰게 내줬던 것. 여기에 여약사회 인천지부와 행동하는 의사회, 참의료실천단,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면서 진료 과목을 늘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3차 병원 연계 위해 애쓰는 중

현재 이곳의 의료진은 참여 단체들이 각 진료 과목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 팀원을 구성하고 있다. 치과 4~5명, 내·외과 2~3명, 한방 2명, 약국 1~2명이 한조를 이뤄 두 달에 한 번꼴로 번갈아가면서 진료를 본다.

희망세상의 유순화 기획실장은 "찾아오는 환자들이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이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물리치료 기재와 관련 인력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한다.

그동안은 외부 후원 없이 참여 단체들이 운영비를 분담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후원 계좌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검사 및 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이를 의뢰해 연계하는 체계를 갖춰 환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 Tel **070-8775-0920**

박성표 희망세상 상임대표

"'미등록 노동자' 진료공간 꼭 필요"



'희망세상'은 2004년 치과 진료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박성표(45) 원장이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제안을 받아 시작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파악한 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에 연락을 해와 논의한 결과 몇 명이 힘을 모아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 원장은 진료소를 처음 시작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처우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대신에 '미등록 노동자'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평균 1천만원 정도의 브로커 비용을 씁니다. 처음엔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하다가 등록 기간을 넘겨도 이 돈을 다 벌 수 없어 자연히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안 되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박 원장은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떤 환자는 자신의 증상,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등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온 적도 있습니다. 통역으로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젊은 남자 환자는 앞니가 다 망가져 보철 치료를 해줬는데 본국에 돌아가 결혼을 한다면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박 원장은 "현재 치과는 하루 30명, 내과와 한방은 하루 50명 이상 진료가 가능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 환자들은 훨씬 적다"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와 치료를 자료화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물길도 발길도 쉬엄쉬엄 만나는 강변길

여강(麗江)은 경기도 여주 땅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의 다른 이름이다. 그 이름처럼 풍광 수려한 이 강의 양쪽에 여강길이 개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인 여강길은 완벽한 순환형 코스. 시종 남한강의 물길을 따라가는 이 길은 겹치거나 되돌아오는 구간이 거의 없다. 그 덕택에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세 코스로 이루어진 여강길의 총길이는 55킬로미터에 이른다. 보통사람의 걸음걸이로 18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길이다. 그러므로 전체 구간을 도보로 섭렵하려면 적어도 1박2일의 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쉬엄쉬엄 달려도 예닐곱 시간이면 전체 구간을 둘러볼 수 있다. 두어 군데의 산길 구간 말고는 대부분 평탄한 강변길이다.

여강길의 제1코스인 '옛 나루터길'은 남한강의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남한강변의 바위절벽 위에 올라앉은 영월루가 이 코스의 첫 경유지다. 조선시대 여주 관아의 정문이던 기좌제일루(畿左第一樓)를 1925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영월루로 개칭했다고 한다. 누각에 올라서면 여주대교 일대의 남한강과 여주 읍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영월루 아래의 남한강에는 관광용 황포돛배가 한가로이 떠간다. 황포돛배 선착장 옆의 넓은 백사장에서는 4대강살리기 공사가 한창이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길을 찾아 우만리나루터에 당도했다. 이 나루터는 강 건너의 강천면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러 여주읍 우만리를 오가거나, 원주 소장수들이 여주장이나 장호장에 드나들 때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늙은 느티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나루터의 풍경이 스산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적막감





◀ 늙은 느티나무가 옛적의 영화를 말해주는 여주읍 우만리나루터.

▲ 남한강변의 풍광 좋은 암벽 위에 자리한 신륵사 강월헌과 삼층석탑.

▶ 흥원창지에서 바라본 남한강과 섬강의 합수머리. 강 건너편에 자산이 우뚝하다.



은 느껴지지 않는다. 근처 영동고속도로의 남한강교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소음이 요란한 탓이다.

작은 나루터와 선사시대 유적지가 남아 있는 점동면 흔암리 마을을 지나면 이내 아홉사리과거길에 들어선다. 여강길 전체에서 가장 험준하면서도 운치 좋고 아름다운 오솔길이다. 이 길은 흔암리의 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와 여흥 민씨 집성촌인 도리마을 사이의 남한강변에 우뚝한 산자락을 굽이굽이 돌아간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에도 지나다니던 길이라고 한다.

물줄기 세 개 만나는 '세물머리'서 2코스 시작

이곳 길가에 핀 구절초를 중양절(음력 9월 9일) 때 캐서 달여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속설도 전해온다. 이처럼 옛길 특유의 사연과 운치, 그리고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홉사리과거길은 두 발로 걷는 하이커(Hiker)들에게는 꿈길처럼 황홀하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 라이더(Rider)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땀 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졸이는 준령이나 다름없다.

아홉사리과거길의 종점인 도리마을에서는 여강길의 제1코스도 끝나고 제2코스인 세물머리길이 시작된다. 도리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점동면 삼합리에서는 남한강 본류와 섬강, 청미천의 세 물길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지명도 세물머리이고, 삼합(三合)이다.

물줄기만 셋이 아니다. 여강길도 경기, 충북, 강원 등 3도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든다. 삼합리에서 닭이목이고개를 슬그머니 넘어서면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이고, 거기서 다시 남한강대교만 건너면 강원 원주시 부론면 소재지인 법천리에 당도한다. 남한강대교의 개통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개치나루터에는 일엽편주가 사공도 없이 홀로 떠 있다.

법천리 서원마을의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법천사지가 있다.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창건됐다는 법천사는 오랫동안 대찰

의 면모를 유지하다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다. 현재 발굴 작업이 한창인 이 절터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간간이 이어진다. 고려 선종 2년(1085)에 조성된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를 보기 위함이다. 높이 4.55미터의 이 탑비(부도비)는 고려시대 탑비를 대표하는 걸작품으로 손꼽힌다. 귀부와 비신, 이수 등의 각 부분마다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문양과 형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연발하게 만든다.

부론면 소재지에서 남한강 둑길을 따라 하류 쪽으로 2.5킬로미터쯤 가면 흥원창지에 다다른다. 남한강과 섬강의 물길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 흥원창은 고려 초에 처음 설치됐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충주의 가흥창과 함께 남한강 수운(水運)의 중심지였다. 원주, 평창, 정선, 영월, 횡성 등지에서 거둬들인 세곡(稅穀)은 이곳에 보관됐다가 남한강 뱃길을 타고 한양으로 운송됐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 뱃길의 수심이 점차 얕아진 데다가 곡식 대신 포(布)나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되자 조창의 역할은 크게 위축됐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흥원창도 문을 닫았다.

흥원창지에서 여강길의 제3코스인 바위늪구비길이 시작된다. 옛 영동고속도로의 섬강교에서 바라보는 섬강의 풍경이 한가롭고 여유 있다. 다급했던 마음이 저절로 누긋해진다. 섬강교를 건너면 다시 여주 땅이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점동면 도리와 마주보는 강천면 강천리에는 약 1.5킬로미터 길이의 '해돋이산길'이 있다. 강 건너의 아홉사리과거길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강변 산길이다. 초반부에는 노폭이 비좁고 급경사 구간이 많아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지만, 중반부와 후반부는 길의 경사가 완만하고 노면상태도 좋아서 상쾌한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다.

'강월헌' 앉아 노을도 즐겨 보고

강천리 마을 앞부터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 사이의 강변에는 제3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인 바위늪구비가 펼쳐진다. 바위늪구비는 남한강 물길이 만들어놓은 자연 늪이다. 강물이 늘면 물길이 되고, 강물이 줄면 늪이 된다. 주민들은 그곳에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늪 주변에는 광활한 모래밭과 갈대밭이 형성돼 있어서 인기척에 놀란 고라니와 꿩이 이따금씩 뛰쳐나오거나 날아오르기도 한다.

남한강교부터 코스의 종점인 신륵사까지는 줄곧 찻길을 따라간다. 길은 유난히 더디고 지루하다. 도중에 만나는 목아불


충주 단암리와 원주 법천리 사이의 남한강변에 자리한 개치나루터의 한가로운 풍경.

교박물관(031-885-9952)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갑다.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인 박찬수 씨가 지난 1993년에 설립한 불교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 안에는 그가 직접 조각했거나 수집한 불상, 불교 장식품 등이 전시돼 있다. 그 가운데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한 것만도 3점이나 된다.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신륵사(031-885-2505)까지의 거리는 십리쯤 된다. 자전거로는 단숨에 내달릴 수 있겠지만, 도보로는 1시간쯤 걸릴 만한 거리다. 풍광 좋은 남한강 강변에 위치한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고찰이다. 고려 말에는 유명한 고승인 나옹선사가 머무르다 입적했다.

신륵사의 여러 가지 보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한강변에 우뚝한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이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은 모전석탑이 아니라, 탑 전체를 벽돌로 쌓아 만든 진짜 전탑이다. 탑 아래쪽의 바위에는 아담한 삼층석탑과 '강월헌'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 정자에 올라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덧 노을빛이 섬뜩하리만치 화려하다. 호수처럼 잔잔한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 1993년 설립된 목아불교박물관.
▲ 자전거를 타고 섬강교 아래의 강변길을 달리는 라이더.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제1코스(옛 나루터길)** | 15.4킬로미터, 5~6시간 소요. 여주버스터미널 → 영월루 → 은모래금모래유원지 → 수생야생화단지 → 우만리나루터 → 흔암리나루터 → 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 아홉사리과거길 → 도리마을회관

▶ **제2코스(세물머리길)** | 17.4킬로미터, 6~7시간 소요. 도리마을회관 → 청미천 → 창남나루터 → 삼합저수지 → 개치나루터 → 법천사지 → 흥원창지

▶ **제3코스(바위늪구비길)** | 22.2킬로미터, 7~8시간 소요. 흥원창지 → 섬강교 → 닷둔리 해돋이산길 → 강천마을회관 → 여성생활사박물관 → 바위늪구비 → 오감 도토리마을 → 대순진리회 → 목아불교박물관 → 신륵사

문의 · 걷는 사람들의 모임 '강길' | (031-884-9089 · blog.daum.net/rivertrail). '강길'에서는 매달 여강길 정기 걷기 행사도 진행한다.

숙박

여주대교 부근에 자리한 남강호텔(031-886-0132)과 드라마모텔(031-885-1171)은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인증을 받은 숙박업소다. 영월루에서 은모래금모래 강변유원지로 가는 길가에 썬모텔(031-885-1818), 허브모텔(031-886-0330), 쟈스민모텔(031-881-5200) 등이 몰려 있다.

맛집

여주대교에서 멀지 않은 여주읍 오금리에 자리한 (구)보배네만두(031-884-4243)는 직접 만든 손만두와 손두부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목아불교박물관 내의 걸구쟁이네(031-885-9875)에서는 오신채를 쓰지 않는 사찰음식과 곤드레돌솥밥, 도토리총떡 등을 맛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바위늪구비로 가는 도중에 지나는 강천면 굴암리에는 어업권을 가진 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굴암매운탕(031-882-6382)이 있고, 은모래금모래 강변유원지의 정문 앞에 자리한 스모키혓(031-886-3608)은 미국식 정통 바비큐요리 전문점이다.

가는 길

▶ **승용차** | 영동고속도로 여주나들목(37번 국도 · 여주 방면) → 여주버스터미널 사거리(우회전 · 신륵사 방면) → 영월루(또는 신륵사 입구의 주차장에 주차)

▶ **대중교통** | 서울 구의동의 동서울터미널과 반포동의 강남고속터미널에서 30~60분 간격으로 여주행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출발한다.

“스포츠 바우처로 ‘경찰관’ 꿈이 생겼어요”

태권도 배우며 꿈 키우는 소녀가장 박주희

조영철 기자



주희 양은 하루하루가 고단해도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주희 양은 스포츠 바우처 제도 덕분에 무료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지금은 1단으로 올 가을 승급 시험을 치른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주희는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산다. 동네 향교회관에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는 아픈 곳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짓고 빨래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 세희를 돌본다.

“동생은 엄마가 단발머리였다는 것만 생각난대요. 저도 어떤 때는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가끔 사진을 꺼내보면 생각나고요.”

주희에게는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커가면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1998년 경제위기 때 아빠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 결국 망했고, 전 재산 2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마저 엄마가 들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예순이 넘은 주희 아빠는 지금도 빚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지방을 전전하느라 집에 자주 올 형편이 못 된다. 몇달 전부터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다. 그저 전화비를 못 내는 형편인가 보다고 짐작할 뿐이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하루하루가 고단해도 주희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이 되면 경찰관이 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바람이다. 2년 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게 됐다.

“태권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장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스포츠 바우처 제도 덕분에 태권도를 배우면서 경찰관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대학에 가는 걸 목표로 삼았죠.”

스포츠 바우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와 스포츠용품 구입비(연간 1인당 6만5천원 이내)를 지원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희네 세 식구는 기초생활수급 월 55만원에 할머니의 노령연금 8만8천원으로 살고 있다. 방세를 포함해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이 나가면 11만원이 남는다. 할머니 약값도 5만원 정도 든다.

“학원 못 다녀도 전교 25등… 경찰대학 진학할 거예요”

“방세만 안 나가도 살 것 같은데 보증금이 없어서 제일 싼 전세도 못 구해요. 게다가 지금 사는 방은 여름철이 되면 바퀴벌레, 지네 같은 벌레가 많이 생겨서 동생이 무서워해요.”

주희는 주말에 친구와 함께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6백 장을 돌리면 1만2천원을 받는데 둘이서 함께 4시간 동안 돌리고 6천원씩 나눠 갖는다.

할머니가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얻어오는 반찬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요즘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충수업을 해서 오후 6시에 끝난다. 집에 오는 길에 태권도장에 들러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려면 배가 고프지만 꾹 참고 태권도 연습을 한다.

“학원은 못 다니지만 지난해 전체 1백30명 중에서 25등 했어요.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하면 성적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이거 봐, 진짜 되네!

도로 민원 해결사 '이 거리를 바꾸자' 사이트… '7인의 해결사'



조선일보

4월 12일 서울 여의도동 거리에서 시민운동단체 '이거바(이 거리를 바꾸자)' 회원들이 길거리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진씨, 김대호씨, 조세영씨, 이범재씨.

4월 2일 저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퇴근하던 박승현(32) 씨는 아스팔트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도로가 길이 1.2미터, 깊이 5센티미터가량 파여 있었다. 휴대전화로 파손된 도로를 찍은 박 씨는 '이거바'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다. 사흘 뒤 그는 대전시 건설관리과에서 "곧바로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거바는 '이 거리를 바꾸자'의 줄임말이다. 이거바 사이트는 일반 시민들에게서 파손된 도로나 잘못된 표지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해당 관청에 알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척 정도를 댓글로 알려준다.

이거바는 영국의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 내 거리를 고치자)' 사이트에서 유래했다. 2007년 2월 시민들이 시작한 픽스마이스트리트는 영국 법무부가 후원한다.

영국의 성공사례를 알게 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47) 소장이 "우리도 우리가 다니는 길을 스스로 고쳐보자"는 생각에서 한국형 픽스마이스트리트인 '이거바'를 만들었다. 김 소장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대표, 열린사회시민연합 주영남 대표, 비타소프트 홍순기 대표 등 7명과 함께 7개월간 작업해 3월 1일 사이트를 열었다. 한국의 이거바는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이거바는 이용료가 무료다. 사이트 관리는 신동진(44 · 한국장애인방송 기획국장) 씨와 조세영(30 · 장애인 인권포럼 연구원) 씨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신 국장은 "이거바는 간단한 신고로 불편을 개선하는 일종의 공익 파파라치 운동"이며 "시민이 주권자임을 체감할 수 있고 공적인 연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올리면 바로 보수

이거바 사이트를 개설한 지 한 달여 만에 1백41건의 제보가 들어와 88건이 해결됐다. 서울 영등포구 주민 최만선 씨는 "한 달째 불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 가로등 사진을 찍어 이거바 사이트에 올렸는데 6일 만에 가로등 불이 다시 환하게 켜져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도 이거바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장애인자립센터 이경환(42) 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10건의 민원을 올렸는데 3건이 3일 만에 해결됐다"며 "장애인들에게는 보물 같은 사이트"라고 했다.

공무원들도 이거바를 반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김태일(34) 씨는 "이거바 민원은 사진을 보고 투입할 장비나 인원을 가늠할 수 있고 지도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국장은 "예산과 인력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 복잡하고 거창한 개선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풍부한 제보만 있으면 관공서와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형원(조선일보 편집국 기자)

이거바 **www.fixmystreet.kr**

때로는… 약간 부족하게

글과 그림 · 최영순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은
결국 아이의 사람됨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한 권으로 전하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5월을 말할 때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거기다 부부의 날까지, 5월을 가득 메우고 있는 날들이 5월을 그대로 말해준다. 누군가를 소중히 일깨우는 달이라고. 싱그러운 봄날이 펼쳐지는 5월, 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행복이자 축복이다.

그럴 때 그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책을 선물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5월을 맞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위원들이 뽑은 책을 선물한다면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찰스 키핑이 쓴 〈찰리, 샬럿, 금빛 카나리아〉를 아이들 손에 쥐어주자. 런던에 사는 주인공 샬럿이 도시 개발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이 작품은 메타 픽션 형식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 '메타 픽션'이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 허구 세계와 이야기 밖 실제 세계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도록 하는 글쓰기 방식. 이 책을 추천한 그림책 평론가 서정숙 씨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주인공처럼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이폰이 대세?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트렌드 따라잡기

부모님에게 앞서가는 요즘 트렌드를 설명해드리고 싶다면 '21세기 황금사과' 애플사(社)에 대해 다룬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을 추천한다.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문을 열었고, 최근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출시돼 '디지털 네이티브족'이 양산되고 있다.

그중 애플이 만든 가장 뛰어난 전략은 '앱스토어'란 콘텐츠 창고를 만든 것.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책은 말미에서 애플의 마지막 전략인 애플 TV를 언급하면서 또 한 번의 미래혁명을 예고한다.

성별과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선물하면 잔잔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책도 있다. 전직 수사(修士)인 서영남 씨가 쓴 〈민들레 국수집의 홀씨 하나〉다. 2003년 지하철 동인천역 근처에 만들어진 이 식당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책을 추천한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은 "저자가 보여주는 소유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된다"고 찬사를 보냈다.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숨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 박경희 옮김 · 문학동네 펴냄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타 뮐러의 최신작.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애환을 그린 소설 | **추천** 신경숙(소설가)



프루스트의 화가들

유예진 지음 · 현암사 펴냄
마르셀 프루스트의 미술 작품 해설에서 나아가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민들레 국수집의 홀씨 하나

서영남 지음 · 휴 펴냄
2003년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연 민들레 국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

최용석 지음 · 아라크네 펴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필두로 세상을 바꾸려는 애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능적이고 매혹적인 동물들의 생존게임

마르쿠스 베네만 지음 · 유영미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단순한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재치와 지능이 번뜩이는 동물들의 생존전략들을 소개하는 책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다극화체제, 미국 이후의 세계

김애화 외 지음 · 시대의 창 펴냄
미국 이후의 세계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돈황의 역사와 문화

나가사와 카즈토시 지음 · 민병훈 옮김 · 사계절 펴냄
'실크로드의 꽃'이라 불리는 돈황의 변천 과정과 흥망성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돈황 개설서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정치와 윤리-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이종은 지음 · 책세상 펴냄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분석했다.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이라크에서 나의 생활

폴 브리머 지음 · 신금석 옮김 · 한국국방연구원 펴냄
이라크의 민주국가 설립에 관여했던 미국 대사의 악전고투를 통해 이라크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찰리, 샬럿, 금빛 카나리아

찰스 키핑 지음 · 서애경 옮김 · 사계절 펴냄
런던의 정겨운 모습이 도시 개발로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담았다.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오감으로 미술과 친해지기
자녀 '드림지수' 높여주세요



기획전 〈꿈꾸는 아이들, 드림바이러스〉

일시 5월 23일까지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갤러리7
관람료 어린이와 청소년(만 3~18세) 7천원, 일반인(만 19세 이상) 9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은 동반 1인까지)
문의 02-3273-4933 www.sac.or.kr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특별한 나들이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꿈꾸는 아이들, 드림바이러스〉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어린이 아트스튜디오 '클레이짐'이 기획한 이 전시회는 현대 미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의 드림지수(DQ·작품을 이해하는 능력)를 높여주는 것이 커다란 매력. 전시된 작품을 그저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조각, 도자 오브제, 설치미술 분야의 아티스트인 변대용, 민정아, 강경연, 홍이랑 등 4인의 작품 13점이 출품돼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중에서도 변대용의 〈호기심 많은 인어〉, 민정아의 〈코끼리들의 수다〉, 강경연의 〈비밀의 정원〉, 홍이랑의 〈붉은 비〉는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전시장을 찾은 모든 아이들은 이들 작품을 감상한 후 저마다 꿈을 주제로 자신의 드림카드에 그림을 그리고, 철사 같은 유연한 재료를 사용해 이를 구체화한 조형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아이들의 드림카드와 조형물은 따로 진열돼 하나의 공동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 작품이 바로 〈네버엔딩 드리밍(Never Ending Dreaming)〉이다.

클레이짐의 이진숙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세상에 밝음을 전파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마음속에 간직해온 꿈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전시를 관람한 모든 아이들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작가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무한한 상상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누구나 꿈의 파수꾼, 즉 '드리밍 아티스트(Dreaming Artist)'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창극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

일시 5월 26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창극단이 판소리를 공부하는 어린 소리꾼들과 소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무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로 나눠 1차 오디션을 거친 젊은 소리꾼들이 판소리 다섯 마당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은 공력을 맘껏 펼쳐보인다. 국립창극단 유영대 예술감독이 판소리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해설도 곁들인다.

해금 독주회 〈박해진의 두 줄 해금 속 가즌회상〉

일시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무료
문의 02-508-3333 www.gugak.go.kr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인 해금 연주가 박해진이 우리 전통 악곡의 연주 형태 중 하나인 '가즌회상'을 연주한다.

별곡이라고도 부르는 가즌회상은 곡의 삽입 여부에 따라 네 가지 형식으로 연주가 가능한데 이번 무대에서는 그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형식을 취한다. 정악 중에서도 가장 느린 편에 속하는 '상령산'과 가장 빠른 곡이라고 하는 '양청도드리'를 한 무대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6월 2일(수)
동시지방선거



1인 8표, 이렇게 투표합니다

1차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2차투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본인여부 확인 → 1차 투표용지 4장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입 → 2차 투표용지 4장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입

-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만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1 대한민국 국가 및 공기업 신용등급 상향조정
7.89% 1분기 성장률 7년만에 최고
2700억 달러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426억 달러 연간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2010년 11월 세계 중심으로 나가는 G20정상회의
아빠,
왜 우리나라만 올라갔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준 국민 덕분입니다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공기업이 서민경제에 윤기를 더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